FEB 2 1983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Edition

한국일보 토론토

No. 1046 1983년 2월 2일(수)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533-2361 Wednesday, February 2, 1983

토론토발행인 : 김명규
편 집 인 : 김운영
인 쇄 인 : 박정서
광 고 국 장 : 송광호

슐츠 국무장관 6일 방한

방위공약, 교역협력등 광범한 협의예정

【워싱턴 27일 연합통신 본지사특약】 죠지 슐츠 미국무장관은 오는 2월6일부터 3일간 예정으로 한국을 방문, 미국의 대한방위공약 준수를 재천명할 것이라고 27일 미행정부의 고위 관리가 말했다.

슐츠 장관의 아시아 방문 배경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이 관리는 슐츠 국무장관이 대한방위 공약 준수를 재천명함으로써 북한측에 대해 미국의 한반도 평화수호 결의가 분명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아울러 슐츠 장관은 남북한의 군사력도 평가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과 한국이 전통적인 맹방관계임을 지적하면서 미국은 '한국측이 제의한 공산권 국가와 서방국가들간의 남북한 상호 승인안을 지지한다고 밝히고 한국이 국제 무대에서 외교적 접촉을 넓혀가는 노력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미국과 한국 두나라간의 무역거래량이 지난 한해동안 1백20억달러에 달했다고 밝히면서 한국이 국제무대에서 경제적 역할을 넓혀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슐츠 국무장관은 한국 방문시 양국간의 전반적인 문제를 폭넓게 토의하고 일본 방문과 중공 방문 결과를 전달하기 위해 한국의 최고 지도자와 회담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정당·사회단체 대표자회의 갖자"

손 통일원장관 북한에 제의

(서울1일=연합)손재식 한국 국토통일원장관은 1일 성명을 발표, 남·북한정부, 정당및 사회단체 대표들의 회담을 갖자고 북한측에 제의했다.

손장관은 이 성명에서 이를 위해 오는 3월에 판문점, 서울 혹은 평양에서 양측의 정부대표 2명과 정당대표 3명씩이 참석하는 실무자급 예비회담을 갖자고 제의했다.

손장관의 이날 성명은 북한측이 지난 1월18일 양측 정당및 사회단체 대표들만의 연석회담을 갖자고 제의한데 대한 대안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성명발표가 있은 뒤 기자들과의 회견에서 손장관은 북한측이 지난 18일 양측 정당및 사회단체대표의 연석회의를 제의한 배경에는 최근 잇달은 한·일및 미·일 정상회담으로 한·미·일 3국이 공동군사협정을 체결할 가능성이 있지않을까하는 북한측의 우려에서 나온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김대중씨 건강양호

(워싱턴)지난 12월하순 한국정부의 형집행정지로 석방된후 「신병치료」차 미국에 온 김대중씨는 28일 워싱턴의 죠지타운대학 부속병원에서 약 1주간 진찰을 받은 결과, "지금으로서는 입원이나 치료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그 결과, 김씨는 미국 도착때 "병치료후 시간이 허락되면 하바드대학에서 공부하고 싶다"고 말한대로 하바드대학이나 죠지타운대학의 특별연구원으로 취임할 것이라고 김씨측근이 비쳤다.

김의택씨 사망 전 민권당당수

(서울1일=연합)30여년간 야당에 몸담아온 전 민권당 당수 김의택씨가 1일 자택에서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73세.

전남 함평출신이며 4선의원의 관록을 가진 김씨는 74년에는 신민당 당수대행직을 맡았고 81년에 민권당을 창당하여 작년 11월 병환으로 사임할 때까지 당수를 역임했다.

81년 2월 제12대 대통령 선거때 입후보하기도 한 김씨는 유족으로 1남1녀를 남겨두고 있다.

캐나다한국 외환은행
●본점: 2 First Canadian Place #1140 364-2890
●지점: 627 Bloor St. W. 533-8593

◆로날드·레건 미대통령이 1일 워싱턴 덜레스공항에서 수퍼·보울 17에서 우승한 워싱턴 레드스킨팀의 팀마크가 있는 모자를 쓰고 선수들을 환영하면서 수퍼보울 우승트로피를 들어보이고 있다.(관계기사 3면에)

와일드·켓츠 2연패

모국 동계전국체전

(서울본사전화)서울에서 열린 제64회 전국체육대회 동계체전의 아이스하키 중등부경기에 출전한 캐나다 교포팀 와일드·캣츠(한국명-화랑)는 28일 동대문 실내링크에서 열린 최종일 결승전에서 휘문중학을 물리치고 우승, 2연패의 영광을 얻었다.

선수 16명과 임원 10명으로 구성된 캐나다교포팀은 이날 결승전에서 연령과 체력에서 본국의 학생팀보다 열세인 제약점을 극복하고 게임 벽두부터 캐나다 본고장의 하키정수를 선보이며 작년에도 결승에서 대전한바 있는 강호 휘문을 시종 일방적인 공격과 방어의 팀웍크와 특출한 개인기를 보인 가운데 제1피리어드 1대0, 제2피리어드 4대0, 제3피리어드 2대1의 스코아를 올려 7대1로 완파했다.

1차전 경기에서는 중동중학을 8대1로, 2차전에서는 경성중을 6대1로 가볍게 물리친바 있다.

북한전투기 남한영공 침범

위협사격 받고 도주

국방부 발표

(서울 1일=연합)북한 전투기 1대가 남한 남서부 상공에 근접했다가 남한측의 위협사격과 공군의 긴급출동이 있자 북한으로 도주했다고 1일 한국국방부가 발표했다.

국방부발표에 따르면 북한 IL-28전투기 1대가 31일 하오 8시25분(현지 시각)경 인천부근 백령도 500M상공까지 근접했다가 한국 육군의 위협사격과 공군의 긴급출동이 있자 북쪽으로 되돌아 갔다.

박동식 국방부대변인은 이 사건은 분명한 휴전협정 위반으로 현재 유엔 군사정전위원회가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대변인은 북한측이 이 사건을 외신기자들에게 날조해서 밝힘으로써 세계의 여론을 오도시키고 있다고 비난하고 북한은 그같은 처사로 인한 모든 불행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이 한국상공을 침해한 것은 지난 81년 8월12일 4대의 북한 미그21전투기가 한국상공을 침범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은하 보석
란콤화장품 대리점 귀국선물
ROLEX
가장 믿고 살수있는
로렉스지정판매대리점
☎ : 534-9977 7791 620A Bloor St. W.

김대중씨가 말하는 납치진상 ⑤

나는 광주사건과 관련됐나? 지하실서「한민통」관계 조사받아

지하실에 감금돼

박정희 대통령이 사라진 뒤 「서울의 봄」이라고 불리운 해빙시기가 왔다.

멀지 않아 있을 대통령선거에 김종필 공화당 총재, 김영삼 신민당 총재, 그리고 나(김대중)의 이른바 「3김씨」의 경합이 될 것이라는 소문이 자자했다.

그러나 군인이던 박대통령의 뒤는 역시 군인이 쟁취했다. 현 전두환 대통령은 군 보안사령관겸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장으로서 박대통령살해사건을 조사했었다.

◆80년초 〈서울의 봄〉 시기에 이른바 3김씨의 경합 소문이 자자했던 당시의 김영삼(왼)씨와 김대중씨.

무장군의 포위

1980년 5월17일 저녁 무장군인들이 서울시 마포구 동교동에 있는 우리집을 포위했다. 밤 11시쯤 30~40명의 군인이 문을 열라고 소리쳤다. 군인들은 우리 경비원들이 "누구냐? 신분을 밝히라."고 물어도 대답안하고 근 20분간이나 문을 두드렸다.

그때 나는 침실에 있다가 일어나 응접실에서 문밖동정을 알아본 뒤에 경비원에게 문을 열어주라고 일렀다. 군인들은 총을 든채 응접실로 들어와 나를 둘러쌌다.

"무슨 일인가?"하고 물으니, 그들은 "계엄사령부에서 왔다. 함께 가자!"는 것이다.

나는 그들을 따라 밖에 나갔다. 대문 밖에는 승용차가 대기하고 있었다. 내가 타니까 군인이 내 양옆에 앉았다.

그들은 연행도중 내가 반항하면 "죽여도 좋다"는 지시를 받았음을 후에 알았다.

내가 도착한 곳은 중앙정보부의 지하실이었다. 나는 육군형무소로 옮겨지기까지 약 두달동안 이 지하실에서 지냈다. 지하실에는 방이 여러개 있었다. 방마다 방음장치가 되어있어 방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리는 일절 밖에서 들을 수 없게 되었다.

때때로 옆방문이 열릴때 사람의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이 방에 있으면 일종의 폐쇄공포증에 걸리기 쉽게 되어 있어 나는 불면증으로 밤에도 잠들 수 없었다.

연행 다음날부터 조사가 시작됐다. 나는 변호사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됐다, 성경책 차입도 거부당했다.

고문을 자원

나에 대한 수사의 중점은 광주사건과 관련문제였다. 그들은 내가 광주사건을 일으키려고 서울에서 내란모의를 했다는 「자백」을 얻고자 했다. 그들이 내게 작업복을 갈아입힐때 나는 고문을 받는 줄로 알고 소름이 쭉 끼쳤다.

그러나 고문은 받지 않았다. 내가 "고문을 받겠다."고 자원한 것이 그들의 생각을 바꾼 것같다.

광주사건이 발생한 것은 5월18일로서 그때 이미 나는 정보부지하실에 갇혀있던 때였다. 이점에서도 나와 광주사건을 결부시키는 것은 무리한 일이었다. 나는 "선거를 하면 김종필, 김영삼씨를 누르고 이길 사람인데 왜 내란을 일으키겠는가?"하고 반문하여 조사관의 답변을 궁하게 했다.

결국 그들은 친구인 김상현(전 신민당 소속 국회의원)씨가 데려온 광주의 국립전남대학 복귀학생 정동년에게 내가 돈을 준 사실밖에 캐내지 못했고 그 돈이 내란자금이었다고 입증할 수는 없었다.

『마지막 카드』

이때 일본에 있어서의 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한민통)와의 관련여부도 함께 조사됐다.

그들은 "이것은 기소사실에는 없는 것이므로 참고로만 청취하겠다"고 거듭 말했다. 이유는 이 문제는 73년 나의 납치사건 직후 철저하게 조사하여 다 밝혀졌으며, 한일 양국정부가 "해외에 있어서의 언행은 불문에 부친다."고 합의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후단계에 이르러 광주사건만으로는 불충분하자 그들은 「마지막 카드」로 한민통 관련의 국가보안법 위반(반국가단체 구성및 그 회장취임)을 내세웠다.

8월중순 정보부지하실로부터 육군형무소로 옮겨진 뒤 기소장을 받고 그 사실을 알았다.(계 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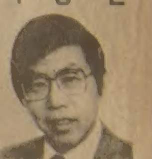
오늘의 예금금리(1/25부터)

한인신용조합

기 간	신용조합	오푸기정기예금	시중은행
30일	9%		8%
90일	9.5%		8.5%
180일	9.5%	9.25%	8.5%
365일	9.5%	9.25%	8.5%

※ $100,000이상은 특별금리로 우대함.
보험이 보장하는 한인신용조합 Tel : 533-9387~8

SUNLIFE
백 용 빈



생명보험, 주택보험
R.R.S.P
사업보험, 상점보험
B) 497-3800
R) 284-9052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 W
B) 536 1632
R) 245 35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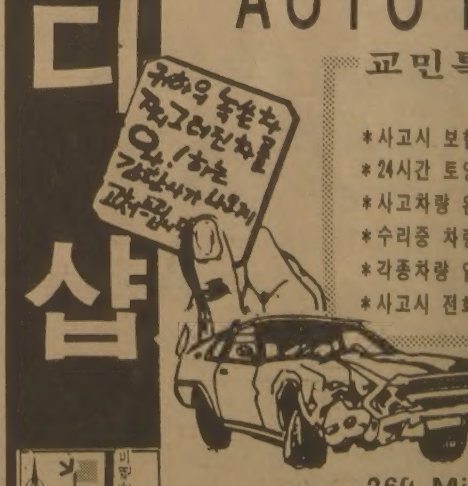
강학수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R.S.P.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Camelot Creations
(Div. of Sunglass Promotions Inc.)
〈각종 고급 썬그라스 대매출〉
각종 유명 메이커제품을 구비하고
한인교포 여러분께 선보입니다.

Available 15% Discount Korean Only
광고쿠폰을 가져오시면 15% 할인합니다.
Bring This Ad for 15% Discount Korean Only
5125 Steeles Avenue West
Weston, Ontario
M9L 1R5
Bus: (416) 742-6336
742-6339
RAVI RAWANA

바디샵
MID WEST
AUTO BODY SHOP
교민특별할인
※차 페인팅 $250-
*사고시 보험관계 일체처리
*24시간 토잉써비스
*사고차량 완전수리, 페인팅(OVEN BAKED FINISH)
*수리중 차량 대여
*각종차량 일체취급
*사고시 전화문의 환영



260 MidWest Rd. Unit.8
(미들랜드×로렌스)
☎ : 751-9280 임 종 민

MARVIN STARR

〈취급종류〉
▲소형차: ACADIAN, PHOENIX SKY LARK, J2000
▲중형차: LEMANS, GRAND·PRIX CENTURY, A6000, FIRE·BIRD, RIVIERA
▲대형차: 스테이션웨곤, PARISIENNE, LESABRE, ELECTRA, PARK·AVENUE, 벤트럭, USED·CAR
※여러분에게 가장 적절한 차를 구입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조 외 른
☎ 264-2311(B)
439-5030(R)
3132 Eglinton Ave. E.
Markham×Eglinton
Auto Mechanic License, Auto Body Licence 소유
Chassis Frame, Front end Alignment Certificate 소유

University of Toronto
Robarts Library, rm 8049
East Asian Library
Tor On M5S 1A5

벡커협회 정기총회

"회원단결로 권익다지자"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협회와의 결속을 돈독히 하기 위한」 벡커·프렌차이스협회의 신년파티가 29일밤 프린스호텔 크라운·룸에서 열렸다.

정기총회를 겸한 이날 모임에서 김병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회원들이 많이 참석한데 감사를 표한후 총 109명의 프렌차이스·딜러가운데 86명이 교민이라면서 협회를 통해 단결된 한국인의 모습을 보이자고 역설했다.

김회장은 이어 신규회원들에게 탈세보다는 계약위반을 해서라도 세금보고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면서 본사에서는 오전 8시부터 밤 12시까지 새로운 계약을 요구하고 있지만 오전 9시부터 밤 11시까지 가게를 오픈해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프렌차이스 등록비는 2년전에는 2만불을 요구했으나 본협회의 반대로 지금은 5년계약에 5천달러만 내면 된다고 밝히면서 본사의 횡포를 단결된 힘으로 막아보자는데에 협회의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회장인사가 있은뒤 김윤배 총무는 재무보고를 통해 지난해의 총수입 $25,772.48에 지출은 $12,932.67로 $12,839.81가 금년도로 이월되었다고 밝혔다.

◆신년파티에서 "협회를 통해 단결된 한국인의 모습을 보이자고 역설하는" 김병진 회장.

영남향우회 탄생

초대회장에 장필규씨

막강한 단체로 성장한 호남향우회의 뒤를 이어 경상남북도, 즉 영남출신 교민의 친목단체인 영남향우회가 지난 주말 탄생했다.

29일 저녁 케네디·뱅쿠잇·홀에서 100여명의 향우와 내빈이 참가한 가운데 창립된 영남향우회는 82년초 탄생한 경북향우회가 그 모체이다.

이날 총회에서는 경북대구출신이며 램버트제약회사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장필규씨를 초대회장으로, 배경락(대구)씨와 정상우(부산)씨를 부회장으로 각각 선출했다.

총회참석 내빈중에는 장순채 한인회장, 박영철 부총영사, 마보훈 호남향우회장등 호남출신 인사들이 눈에 띄었다.

창립총회가 끝난뒤 참석자들은 가수 박소영양과 밴드를 동원, 8시부터 새벽 1시까지 댄스파티를 가졌다.

제주를 자유항으로 올림픽개최 준비작업

(서울1일=연합)한국은 31일 86년 아시아게임과 88년 올림픽 개최에 앞서 제주도를 국제자유항 지역으로 개발할 계획을 밝혔다.

김종호 건설부장관이 전두환 대통령에게 보고한 금년도 정책계획에서 제주도의 제주항을 홍콩과 같은 국제 자유항으로 개항하고 제주도 전역을 국제관광휴양지로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부는 산하 관계연구소를 통해 금년 10월까지 10억원(130만달러)를 들여 제주도개발 청사진을 작성할 것이고, 미국의 베치텔(Bechtel)회사도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제주도에는 외국관광객이 15일간 비자없이 머물수 있다.

외무부 인사이동 대사 4명 포함

(서울1일=연합)한국정부는 1일 심기철 전외무부기획관리차관보를 말레이지아대사로 임명하는등 대사 4명을 포함한 6명의 외무부 고위관리에 대한 인사이동을 단행했다.

이동된 명단은 다음과 같다.

◉수단대사 심장섭-그리스대사
◉전 외무부경제담당차관보 이창수-스웨덴대사
◉스웨덴대사 강영수-외무부 본부 발령
◉주영대사관 유종화공사-수단대사
◉아시아국장 최동신-주영대사관 공사

구독신청·광고
533-2361

베타클럽 신춘모임

연주·윷놀이 곁들여

토론토 베타한인와이즈맨클럽(회장 홍승규)은 새해 첫 월례회겸 윷놀이대회를 지난 29일밤 미시사가의 홍승규 회장댁에서 가졌다.

이날 모임에는 회원부부를 비롯, 온타리오·패벡지구 윌프·클리버 총재내외, 동 봉사위원장 레슬리·친씨 내외, 이근우 송공문화협회장 내외, 나상선 알파클럽회장 내외등 30여명이 모였다.

간단한 회무처리후 벌어진 윷놀이에서는 부부가 한조를 무어 토너멘트로 예선을 치르고, 혼자 온 사람끼리 한조를 이루어 실시, 결국 이석현·김창열조가 우승, 한상훈부부조 2등, 레슬리·친부부조 3등, 강학수부부조는 감투상을 각각 수상했다.

이날 특별프로로는 레슬리·친씨가 기타를 연주하며 지도한 Y노래모음 합창과 홍회장 3녀 은화양의 바이얼린 독주가 있었다.

◆29일 트라이엄프·호텔에서 열린 서울대학교 동창회 신년파티. 이날 모임에는 50여명의 동문이 참석했다.

서울대동창회 신년파티

신임회장에는 주병돈씨

서울대학교 동창회(회장 신동운) 신년파티가 지난 29일 하오 6시30분 트라이엄프·호텔에서 50여명의 동창들이 모인 가운데 개최됐다.

온타리오주에 약 300명의 회원을 갖고 있는 서울대동창회의 연례행사인 이날 파티는 임윤식동창의 사회로 각자 소개, 디너및 댄스파티로 엮어졌다.

각 단과대학별 동창회 운영위원회가 뽑는 동창회의 새 회장에는 문리대 출신인 주병돈씨가 내정됐으며 회장단은 3월 총회에서 정식 교체된다.

회장의 임기는 1년이다.

한국·캐나다관계의
교량이 되는 신문
토론토·한국일보

한국외채 GNP의 56% 해당

작년에 14%증가한 372억불

— 월스트릿 저널 보도 —

작년도 한국의 외채액은 81년보다 14%가 증가한 3백72억달러에 달한다고 월스트릿 저널이 한국 재무부를 인용 27일 보도했다.

동지는 외채 3백72억달러가 한국 GNP의 56%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강황규씨 사망 1년여 간암과 투쟁

31일(월) 상오11시 고 강황규씨(동우회원)의 장례미사가 토론토한인천주교회(St.Paul성당)에서 최규식신부 집전으로 올려졌다.

미망인 이영숙 여사와 외동딸, 아우 환규씨 내외, 처제내외를 비롯, 신자들·동우회원, 친우·친지등 약 200명의 조객이 참석한 이날 미사에서 최신부는 강론(설교)를 통해 "죽음이 슬픈 일이지만, 신앙인에게는 새로운 삶에의 이동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미사에 이어 유해는 Hwy 7과 Yonge St. North에 위치한 가톨릭묘지에 안장됐다.

강씨는 10년전 캐나다에 이민온 동우회원으로서 배리지역에서 가게 경영중 간암에 걸려 1년간 투병생활끝에 지난 29일 낮 1시 토론토 그레이스병원에서 숨을 거두었다.

강씨는 가장 친한 친구인 김정곤씨(전 실협회장)의 권유로 가톨릭에 입교, 작년에 부부 함께 세례를 받았다.

◆바로 잡습니다

지난 17일 개업한 세방여행사(사장 유승민)의 개업리셉션 기사(본지 2월1일자 제2면)중 리셉션 날자와 시간이 잘못되었기에 바로 잡습니다.

개업리셉션은 11일(금) 하오6시가 아니라, 12일(토) 하오3시입니다. 장소는 세방여행사 사무실(720 Spadina Ave.와 블루어 남쪽)이며 전화는 928-3335입니다.

제5계절

대화

이주연(소프라노)

◆소프라노 이주연씨

대화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언어를 상대방과 직접 교환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인간생활의 가장 자연스럽고도 필수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겠다. 대화를 통하여 개개인은 서로의 뜻을 전하기도하고, 또 한 개인은 그의 정신적인 세계를 주위에 노출시킴으로써 그와 그가 속해있는 여러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보기도 한다.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서로 얘기가 잘 통한다"고 흔히 말한다. 직접적인 대화가 잘 된다는 뜻이다. 반면에 흔한예로 세대가 다르다던가, 서로 생활해온 문화적 배경의 차이로 인하여 우리는 원만한 대화를 이루지 못할때가 많다. 경우에 따라서는 한집에서 생활하는 부모와 자식사이에도 오랜 시간을 두고 대화가 끊어질때가 있다. 참으로 슬픈일이라 아니 할 수 없다.

하지만 대화를 잘 이루고 못 이루는 것은 우리가 대화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언어 그 자체의 구사능력에 있다기 보다는 대화를 통하여 표현되는 우리의 "삶의 세계"가 어떠한 것이고, 또 그것이 어떻게 나타내어지는가에 달려있다고 생각된다. 다시말해서 대화의 과제는 언어의 표현속에서 우리의 삶을 주위에 노출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대화의 목적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과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결부시켜 줌으로써 우리생활의 실존을 찾아보는 것이라고 하겠다.

언어를 통한 직접적인 대화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을때 우리는 간접적인 대화를 통하여서 대화의 목적을 이룰수 있다고 말하고 싶다. 우리에게는 사상과 감정의 지적인 가능성들이 무한히 주어졌지만 이들중에서도 특히 예술이란 간접적대화의 수단을 선택 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강조하고 싶다.

우리는 생활속에서 한편의 시나, 한폭의 그림이나, 또 한곡의 음악을 창작하고 감상함으로써 우리가 나타내고자 하고, 또 나타내어야 할 생활의 존재를 개방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예술을 통한 이러한 대화는 우리의 "삶의 세계"의 진실성을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 대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그 진실성이 나타나야하는 것이다.

한 개인이 실존하고 있음을 알리는 표현은 그의 이기심으로서만 이루어 지는 것은 절대로 아니며, 오로지 서로간의 대화를 통하여서만 이루어질 것이다. 직접적인 대화로서 서로의 생활이 존재하는 것이 위협받을지도 모를 위험성을 떠나 예술을 통한 간접적인 대화를 서로 나눔으로써 시간성과 공간성을 극복한 우리 "생활의 실존"을 발견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간접적인 대화는 대화들중에서도 정성어린 대화이어야 할 것이다. 예술을 통한 간접적인 대화를 나누는 과정속에서 우리생활속에 진실성과 아름다움이 꽃피는 행복의 계절이 우리와 항상 같이 있기를 바란다.

박종수밍크농장

교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인이 직영하는 농장에서는
다년간 밍크제품을 경영해온
유명업체와 특별제휴하여
가장 저렴한 가격과
품질을 보장하는 밍크털로써
특히 여러분 기호에 맞는
맞춤 코트로 봉사하오니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박 종 수 드림

박종수
밍크농장
특 징

□ 공장가격보다
더 싼 농장가격
□ CUSTOM MADE;
당신의 몸에 꼭 맞게 칫수를
재어서 맞춰 드립니다.
(전화만 해 주시면 됩니다.)
□ 최신 유행의 다양한 디자인을
선택 할 수 있읍니다.

수량이 제한되어 있읍니다.

연락처·782 Yonge St.(영 × 블로아)
961-7100▸2 모니카 또는 Mr. 박

레드스킨 워싱톤D.C. 개선

레이건대통령 환영식 참석

(워싱톤)수퍼·보울17의 승리팀인 워싱턴 레드스킨이 대망의 컵을 안고 개선하였다.

31일밤 워싱턴 D.C.로 개선한 레드스킨팀은 워싱턴 덜레스국제공항에서 레건 대통령부부와 마리온·배리 워싱톤시장등 귀빈과 열광하는 팬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레건 대통령은 레드스킨팀의 싸인이 붙은 모자를 쓰고 약 15분간 환영식에 참석했다. 대통령전용 헬리콥터엔 "환영, 세계챔피언"이라는 현수막이 붙어 있었다.

워싱턴 D.C.시민을 위한 환영 퍼레이드는 2일로 예정되어 있다.

수퍼·보울17의 스타인 죤·데이스만과 죤·레긴스 선수가 팀 동료들과 함께 오지 못해 약간의 아쉬움은 있었으나 NFL 41년 사상 워싱턴 D.C.에 처음으로 우승을 안겨준 레드스킨에 대한 환영은 대단했다.

추운 날씨임에도 레드스킨 본부 주변엔 많은 사람들이 소리치며 선수를 태운 버스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간디〉 5개부문 석권

골든·글로브 시상

◆금년도 골든·글로브상에서 최우수신인상을 수상한 간디역의 벤·킹슬리(39)씨와 산달·버그만양.

(헐리웃)인도의 성자 마하트마·간디의 전기를 영화화한 영화 〈간디〉가 제40차인 금년도 골든·글로브상 5개부문을 휩쓸었다.

지난 29일밤 헐리웃에서 거행, 채널 11로 30일밤 방영된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또한 영화 E.T.는 최우수 극영화상을, 또한 투치(Tootsie)는 최우수희극상을 수상했다.

〈간디〉에서 간디로 분장한 영국배우 벤·킹슬리(39세)가 최우수신인상과 최우수남우상을, 영화 〈소피의 선택〉에서 주연한 메릴·스트립이 최우수여우상을 각각 획득했고, 〈투치〉의 더스틴·호프만이 최우수희극·뮤지컬부문 남우상을, 〈빅터·빅토리아〉의 줄리·앤드류스가 최우수 희극·뮤지컬부문 여우상을 획득했다.

영화 〈간디〉에서 감독을 맡았던 리차드·아텐보로와 각본을 맡은 존·브릴리가 각각 최우수감독상과 최우수각본상을 받았고, 최우수외화상 역시 〈간디〉로 돌아가 주연남우인 벤·킹슬리가 탄 두개의 상과 합쳐 5개의 상이 영화 〈간디〉에게로 돌아갔다.

골든·글로브상은 매년 헐리웃외신기자협회가 투표로서 26개 분야의 우수자들을 선정하며 금년도 시상식은 베벌리·힐튼·호텔에서 2천명의 축하객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되었다.

골든·글로브상은 오는 4월11일 있을 아카데미상을 점치는 전초전으로 영화·TV계의 가장 권위있는 상중의 하나이다.

그외의 수상자와 작품은 다음과 같다.

⊙최우수조연남우상: 루이스·코셋(장교와 신사의 교관역)

⊙최우수조연여우상: 제시카·레인지(투치)

⊙최우수영화음악상: 존·윌리엄스(E.T.)

⊙최우수주제가상: Up Where We Belong

⊙최우수희극·뮤지컬연속물: Cheers

⊙사후애도상: 잉그릿·버그만(최근 별세하기전 영화 〈골다라는 이름의 여자〉에서 골다·메이어 이스라엘수상역을 맡았다)

⊙최우수TV영화남우상: 앤토니·앤드류스(Brideshead Revisited)

⊙희극·뮤지컬TV극부문 최우수남우상: 알란·앨다(다음달로 종영되는 MASH)

⊙희극·뮤지컬TV극부문 최우수여우상: 데비·알렌(Fame)

⊙최우수신인여우상: 산달·버그만(Conan the Barbarian)

또하나의 교민화랑

이준관씨 「요한화랑」 개업

블루어 남쪽과 배더스트 동쪽에 또하나의 교민경영 화랑이 생겼다.

구상화가인 이준관씨가 경영하는 요한화랑(John's Art Gallery & Christian Centre)이라는 간판이 붙은 이 갤러리는 1, 2층으로 되어 있으며 1층에는 2,500평방피트 규모의 공간에 작품전시장의 시설을 완비했고 2층에서는 성화·초상화·기독교 서적·테입·선물용 상품및 각종 액자를 판매한다.

5년전 영·스트릿에서 리스·갤러리를 운영했던 이씨는 서양 구상화 특히 초상화를 전문으로 그려왔으며 4년전부터는 정통적인 초상화 화법 연구에 주력해왔다고 한다.

지난 28일 개업한 화랑에서는 현재 이씨 자신의 그림들이 전시돼있다.

◆블루어 한인상가에 생긴 요한화랑의 내부와 이준관씨.

金聖鍾작

<161>

이상한 女人 ⑥

文子가 돌아오니 집에는 형사들이…

문자는 더이상 애걸해봐야 소용없다는 것을 알자 그자리에서서 저주를 퍼부었다.

『개같은년! 어디두고보자. 네가 죽나 내가죽나, 어디 두고보자.』

그러나 여인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가버렸다.

문자는 분노에 몸을 떨며 한동안서 있다가 오빠가 있는 쪽으로 급히달려갔다.

그러나 그는 이미 가버렸는지 보이지않았다.

그녀는 눈에 띄인 벤치에 털썩주저앉았다.

한참 넋을 빼고 앉아있다가 집으로 돌아오니 손님이 와있었다. 손님은두명이었다. 가정부가 아파트문을 따주면서 손님이 와있다고 말하는순간 그녀는 오빠가 미리 와있는줄 알았다.

그러나 안으로 들어가보니 의외의 인물들이 앉아있었다.

그전에왔던 뚱뚱한 형사한명과 나이가 많아 보이는 남자한사람이었다. 처음보는 그남자도 형사인 모양이었다.

『미안합니다.』

뚱뚱한 형사가 일어서면서 말했다. 나이 든 남자는 일어서는 척하다가도로 주저앉았다.

『아, 오셨군요.』

그녀는 반가운듯 말했지만 얼굴은 어느새 파랗게 질려있었다.

『우리가 여기 도착하자 막 나가셨다고 하더군요.』

朴男 그림

마인이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의미심장한 웃음이었다.

『볼 일이 있어서 나갔다 왔어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그녀는 재빨리 수화기를 집어들었다.

오빠였다.

『난데……어떻게 됐어?』

『먼저 말씀해보세요. 어떻게 됐어요?』

『그 여자를 미행했어. 그 여자가 있는 곳을 알아놨어. 그 여자하고 무슨 말을 했어?』

『다음에 말씀드릴께요. 지금 손님들이 와있어서……』

『어떤 손님들이야?』

『……』

『혹시 경찰아니야?』

『네, 맞아요.』

두말 않고 전화가 끊어졌다.

『어디서 온 전화인가요?』

나이 든 김준호형사가 물었다.

『그런걸 말씀드려야 하나요?』

그녀는 정색을 하고 물었다.

『네, 우리는 모든걸 알아야 하니까요. 특히 부인의 오빠되는 박두봉씨를 찾아야 합니다. 부인을 통하면 박두봉씨를 쉽게 만날수가 있겠지요. 방금 그 전화… 혹시 오빠한테서 온 전화아닌가요?』

『아니예요. 학교선배한테서 온 전화예요. 돈 관계로 전화온거예요』

그녀는 너무 당황한 나머지 되는대로 둘러붙였다. 그러나 형사들은 그녀의 말을 믿는것 같지 않았다.

THE KOREA TIMES is a Canadian daily in Korean language serving the Korean Canadians, Established 1974, Lawrence Kim publisher, Woon Y. Kim editor, Kwang Song ad, manager, Subscription $110/yr, $10/mo.(구독료 선금. 연 $110, 월 $10.)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새로개업한
서울식품
•
좋은품질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봉사 합니다
•
해밀톤지점 ☎: 1-385-1485
서부지점 ☎: 243-9544

적은 비용으로 알찬효과를 보는 한국안내광고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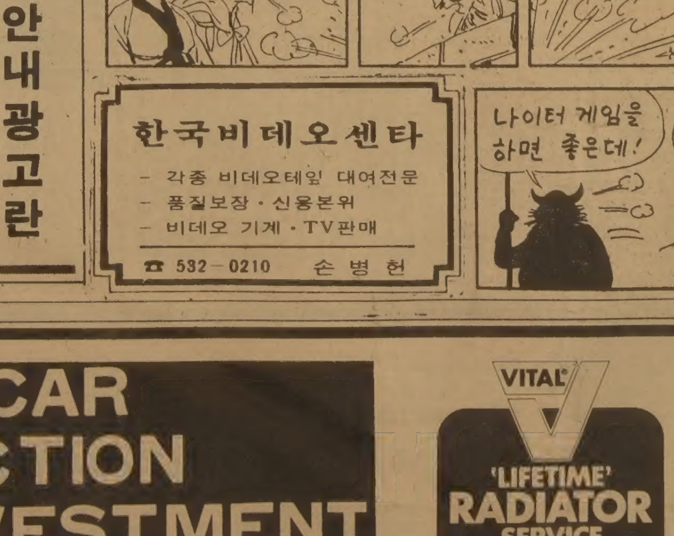
한국비데오센타
- 각종 비데오테잎 대여전문
- 품질보장 · 신용본위
- 비데오 기게 · TV판매
☎ 532-0210 손병헌

-교포운영업체-
VITAL®

NEW & USED CAR
RUST PROTECTION
PROTECT YOUR INVESTMENT

VITAL 'LIFETIME' RADIATOR SERVICE

자동차는 귀중하고 값 비싼 재산
녹쓸지 않고 오래 보존하도록 보호합시다.
⊙교민 특별가격봉사



COMPLETE RUSTPROOFING & UNDERCOATING SERVICE

VITAL CENTRE—ETOBICOKE
6590 FINCH AVE. WEST REXDALE, ONT. M9V 3Z6
741—2701

한국일보

公正去來法적용 확대

의사-변호사-회계사-건축사 부동산-新聞-금융-오락업등

곧 施行令고쳐… 부당酬價·과장·一方약정등 금지

의사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같은 자유업종사자들과 복덕방등 서비스업이 공정거래법의 적용을받아 부당행위를 할수없게된다。

경제기획원은 28일 올해상반기중에 공정거래법시행령을고쳐 지금까지 공정거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돼있던 금융·보험·부동산업과 서비스업에 대해서도 이법을 적용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법적용대상의 확대로 ①부동산을 중개(복덕방)·임대·개발·감정하는 부동산업 ②법률(변호사·사법서사) 회계(공인회계사·세무사) 설계(건축사)등 개인용역 ③병원·의원·치과·한의원(의사)등 의료보건서비스업 ④기타 오락서비스업등이 새로 공정거래법의 적용대상이되고 신문·방송과 금융·보험업도 적용대상으로 추가되게 됐다。

이에따라 의사나 변호사등의 부당한 수가요구나 과잉진료행위、복덕방의 허위과장선전과 과도한 소개료요구、금융기관의 부당한 약정·약관및 일방적 거래정지또는 과도한 담보요구등 부당행위가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아 금지되게된다。

정부는 법적용대상확대와 함께 주세법·기계공업육성법·섬유산업근대화촉진법등 1백36개의 각종 경쟁제한적인 법령들을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가기위해 관계부처합동으로 실무작업반을 편성、오는 10월말까지 정리계획을 수립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일부위임、공정거래제도를 전국적 규모로확산、정착시켜나가기로했다。

정부는 또 보증금제도에관한 공정거래지침을 마련、현금이나 부동산위주로돼있는 보증금을 국공채나 신용보증으로 대체할수있는 제도를 새로 마련하고 설탕·조미료·TV·선풍기·냉장고·운동화등 21개 주요생필품에 대해서는『희망소비자가격표시제』(메이커가 적정한 소비자가격을 상품에 표시하는제도)를 도입、유통과정에서의 부당행위를 막도록할방침이다。

분유·전기통·화장품·의약품등 독과점이 심한품목은 수입개방과 관세율인하、신규허가등으로 경쟁을 촉진하고 중소기업분야의 대기업진출에 대한 대책도 마련키로했다。소비자 보호를위한 부정식품추방대책의 하나로 식품에 대해서도 KS표시와같은 품질 보증표시제를 실시하고 식품위생법·약사법등 25개의 상품표시관련법률도 정비、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현재 2만5천개인 가격표시업소를 올해중 3만8천개로 확대하고 10억원의 예산을확보、5백개의 시범업소를 선정해서 장려금도 주기로했다。

정부는 올해 공정거래의 정착을 위해 제도의 조기정착을 추진키로하고 2월중 상담실을 공정 거래위원회에 설치 운영키로 했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01

新安보물 沈沒年 판명

木簡에「至治三年 六月一日」 元 英宗때인 1323년

高麗 忠肅王10년 해당

◇신안해저보물선의 침몰연대를 밝혀준 木簡。 至治三年六月一日이란 글씨가 새겨져 있다。

新安 해저보물선이 지금으로부터 6백60년전인 서기1323년께 침몰되었음이 밝혀졌다。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는 신안 해저침몰선에서 건져올린 목간(木簡)을 닦아내다 지난25일「至治三年 六月一日」이란 글씨가 새겨져 있는것을 발견함으로써 그동안 막연히 14세기초로만 추정해왔던 신안보물선의 확실한 침몰연대를 규명해낸 것이다。

至治는 元나라 英宗시대의 연호로 至治3년은 서기1323년(癸亥) 고려제27대 忠肅王10년에 해당된다。

길이17.5㎝、너비2.3㎝、두께0.4㎝、무게12g 크기의 소나무에 글씨를새겨놓은 목각은 짐에매달아놓은 꼬리표로 보이는데 바로밑에 희미하게 물건주인의 수결(사인)도 적혀있다。

문화재연구소는 앞으로 목간의 소금끼를 빼내고 적외선촬영을하면 이밖의 글씨도 판독할수 있을것으로 기대하고있다。

지금까지의 조사결과로 미루어보면 도자기등 각종 무역품 수만점을 가득실은 신안보물선이 서기1323년 揚子江하구의 寧波항을 떠나 한국을거쳐 일본으로 향하다 전남新安郡智島面防築里 도덕도 앞바다에서 풍랑을만나 침몰한것같다。

韓日經協 실무회의 1차供與 협의

【東京=宋孝彬특파원】韓日양국은 28일 일본외무성에서 첫경제실무자회의를 열고 韓日정상회담에서 타결된 경제협력 40억달러중 정부차관 18억5천만달러의 1차연도 공여분에 대해 실무협의를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측에서 南洪祐경제국장을 일본측에선 야나기(柳健一)외무성경제협력국장을 각각 수석대표로하는 대표단이 만났다。

南국장은 이날 한국측은 제5차경제사회개발5개년계획의 추진에 따라 서울市와 釜山市의 지하철건설과 洛東江등 하천정리및 다목적댐건설을 위해 정부차관이 쓰여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韓日經協 실무자회의는 29일 1차회의를 마친뒤 오는3월 정부차관에대한 1차연도 공여분 합의공문을 교환할예정이다。

9개 市道黨委員長 선출 국민黨務會議

국민당은 지난19일부터 개최한 市道黨당부협의회에서 慶南을제외한 9개 市道黨위원장을 다음과같이 선출했다。

▲서울=曺德鉉(留)▲釜山=趙且泰(留)▲京畿=趙炳鳳(留)▲江原=申哲均(留)▲忠北=金完泰(新)▲忠南=李鍾聲(留)▲全北=柳凡秀▲全南=李成一(留)▲慶北=金永生(新)

李外務·워커 要談 슐츠訪韓 협의한듯

李範錫외무장관은 28일하오 리처드·워커駐韓美대사의 예방을받고 약20분간 요담했다。

이날 요담에서는 오는2월6일 우리나라를방문하는 슐츠美국무장관의 일정등이 협의된것으로 알려졌다。

"擧國的 기술개발體制 구축"

新製品 구매보장등 과감히 支援

全대통령、技術진흥회의 報告받고 指示

◇全대통령이 技術진흥有功者들에게 훈장을 수여하고있다。

全斗煥대통령은 28일『국제경제의 어려움을 타개해나가는데 가장시급한것은 기술혁신』이라고 전제、『국제경제가 아무리 어렵다해도 기술개발로 이에도전、고도의 창의력을발휘해나가면 능히 어려움을 이겨나갈수 있을것』이라고 강조했다。

全대통령은 이날상오 중앙청에서열린 금년도 제1회技術振興확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강조하고『획기적인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躍進전략을세워 정부·기업·국민이 다함께노력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全대통령은 또『핵심분야 기술개발에는 정부와 기업의 독자적인 힘만으로는 불가능하기때문에 정부·산업계·연구기관이 三位一體가돼 유기적인 정보교환과 협력체제를 갖추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정부도 앞으로 기업의 새기술개발제품에 대해서는 購買보장등 과감한 정책적지원을 해나가겠다』고밝혔다。

全대통령은『국가나 기업 모두가 살아남는길은 기술혁신인만큼 당면과제인 고급人力의 체계적인 양성을 위해 기업도 적극적인 관심을가져달라』고 말하고『컴퓨터등 첨단人力양성을 위해 정부도 많은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지만 각기업및 연구기관도 많은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全대통령은 특히 기술도입의경우 중복도입의 사례가없도록하고 정부、기업、연구소가 상호협력、새로운 정보및 지식의 조속한입수와 전파에 힘써줄것등을 아울러 당부했다。

全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張性道(53·한국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徐相寔(37·한국기계연구소")、吳世和씨(40·여·한국화학연구소")등 3명에게 국민훈장 冬柏章、金鶴鉉(54·大宇중공업 상무이사)、李周珩(42·三星반도체통신연구소장)、李喜鍾씨(50·金星社부사장)등 3명에게는 산업훈장銅塔을 각각주었다。

李正五과학기술처장관은이날회의에서 선진조국창조를 실현키위해 올부터 거국적기술 개발체제를 구축하고 모든 산업의 기술혁신을 가속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李장관은 이를위해 핵심거점기술을 집중개발하는「기술躍進전략」을 국제적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는것을 기본으로하는 ▲기술개발투자의 多元的확대▲기술 需要창출 ▲품질과 성능 그리고 효용을 높이는 유도시책을 적극 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정부는 향후 5년간 약2천억원의 특별財政資金을 투입해서 핵심거점기술의 집중개발과 고급기술인력의 개발·확보에 중점노력하고 정부투자기업에 기술개발특별計定을 설치、매년 투자액의 일정률(0.5~1%)을 적립케하여 原子力·電力·電子通信등 관련공공기술개발에 활용토록 하겠다고 보고했다。이에따라 올부터 韓電은 5년간 5백억원、電氣通信公社는 6백억원의 기술개발자재원을 확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올부터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용도와 稅制面의혜택을 한층 넓혀 기술개발분야에대한 민간기업의투자를 적극유도하겠다고 보고했다。

李장관은 또『정부구매목표중장기계획』을 세워 사전에 발표함으로써 기업의기술개발동기를 유발、품질향상과 기술혁신을 촉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情報산업은 對GNP비중이 79년기준 11%나 되고 汎用컴퓨터 需要도 연평균 30~40%씩 급성장、오는 86년에는 3천대에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를위해 정부는 빠른시일안에 정보산업육성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고 했다。

"不正심리殘存 추방해야"

「淨化」誌기고·편집인등에 오찬격려

全斗煥대통령은 28일낮 영부인 李順子여사와함께 청와대에서 사회정화위원회가 발행하는「淨化」誌의 寄稿者、편집요원등 관계인사 44명을 위해 오찬을베풀고 이들을격려했다。

全대통령은 이자리에서『아직도 우리사회에는 여러가지 지난날의 폐습들이 완전히없어지지않고 있으며、정부안이나 국민들사이에도 부정부패심리가 殘存하고 있다』고지적、『금년한해에는 이같은 심리의 추방이 정착되도록해야한다』고 말했다。

全대통령은 또『우리국민은 자질이 우수하고 봉사와 희생、그리고 단결심이 뛰어난 국민으로 모두 노력하면 선진조국의 창조를 반드시 이룩할수 있다』고 말하고『이같은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국민 모두가 의식개혁을 통해 법과 질서를 바로지키는 의식의 先進化를 먼저 이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자리에는 金聖基 사회정화 위원장이 배석했다。

美、9개 나토同盟國기지 機能완벽 몇개안돼

【워싱턴UPI=聯】미국은 유럽에서의 전쟁발발시 이지역에 추가로 투입되는 美증원군을 지원하기위해 지난15년동안 2억4천만달러의 경비를들여 유럽의 9개나토(北大西洋조약기구)동맹국에 군사기지를 건설해왔으나 이들기지중 임무를 완벽하게수행할수있는 기지는 몇개밖에되지않는것으로 27일 한보고서의 초록에서 밝혀졌다。

美하원 세출위원회 위원장 제이미·휘튼의원(民·미주리州)의 요청에따라 審計局(GAO)이 제출한 한비밀보고서의 초록은『15년간에걸쳐 2억4천만달러의 군사기지건설경비가 투입됐음에도 불구、유럽주둔 美공군사령부는 美증원군을 완벽하게 지원할수 있는 기지가 제한된 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5페이지분량의 이 비밀보고서초록은 이와함께 전쟁발발시의 美항공기및 그 지원요원투입을 위한 유럽 나토국가내의 군사시설을 준비함에있어 美공군이 건설의 우선순위를 더욱 합리적으로결정할수있는 여러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있다。

咸秉春 비서실장 阿洲國 巡訪출국

咸秉春 대통령비서실장은 아프리카3개국을 순방하기위해 28일하오 대한항공편으로 출국했다。

美 東西文化센터 리總長 2일訪韓

빅터·하오·리 美東西문화센터 총장이 李範錫외무장관의 초청으로 2월2일부터 5일까지 우리나라를 방문한다고 외무부가 28일 발표했다。

◇美加州에 폭풍우 — 폭우를 동반한 시속1백12㎞의 강풍이 26일 美國캘리포니아州북부를 강타、스탠퍼드 대학구내 고목의 밑동이 뽑혀진채 넘어져 옆에 주차해있던 승용차속에 처박혀 있다。【스탠퍼드(美캘리포니아州)UPI=聯】

社會漫評

견딜는지…

地平線

미국을 한마디로 자동차문화의 나라라고 표현할수 있을것이다。보통사람들 가정에도 대개 2대의 자동차는 있다。한대는 남편의 출퇴근용이며 나머지는 주부의 쇼핑용 또는 주말장거리 여행용이다。

▼73년 10월 제4차 中東전쟁으로 나타난 石油禁輸 이후 미국에는 小型車시대가 얼굴을 내밀었다。▼미국 TV를 보고 있으면 자동차 광고의 빈도가 가장 높다는것을 금방 알게된다。그중에서도 일본제 도요다小型車광고가 자주 두드러지게 브라운관에 비친다。보통 미국 가정의 자동차는 한달에 약1천6백㎞를 走行한다。주말이되면 워싱턴-뉴욕市간의 하이웨이는 말할것 없고、北部와 南部를 잇는 東部해안간선 하이웨이마저 자동차가 줄을 이어 달린다。자동차문화는 미국의 상징이며 先進자본주의국가들의 한 징표이다。

▼先進祖國의 창조를 國政목표로 내세운 우리나라도 80년대 하반기쯤엔 그문턱으로 들어설수 있게 될것같다。商工部는 값싸고 실용적인 자동차를 보급하기위해 2백만원내외의 도시중산층용 小型승용차와 3백만원내외의 농촌다목적용 자동차를 개발할 정책을 추진할것으로 알려졌다。이처럼 先進자본주의 국가들의 자동차는 대중문화의 애용물이다。그에 반해 공산국가에서는 고위특수층의 전용물이 되고 있는것도 부인할수 없다。

▼공산주의 지도자들중 자동차를 狂的으로 좋아하고 수집하기론 소련의 故브레즈네프 당서기장을 앞설자가 아직은 없을 것이다。그가 미국이나 西歐국가들을 방문하면 현지소련대사가『貴國이 고급승용차를 선물하면 브레즈네프서기장은 매우 기뻐할지도 모른다』고 넌지시 신호를 보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얘기다。그는 공산국의자 답지않게 링컨、캐딜락、메르세데스、롤즈로이스같은 고급차를 좋아했다。브레즈네프는 77년 프랑스를 방문했을때 2대의 마트라 고급차를、닉슨과의 캠프데이비드회담때엔 링컨고급차를 선물 받았다。

▼北韓이 일본에 防彈특수차 99대를 주문했다는 것은 異色的인 보도다。金日成의 아들 金正日의 생일(2월16일)전에 日貨2천2백만엔(약7천2백60만원)상당의 최고급승용차를 비롯、최고급 침대차、주방차등 부대차량을 사들인다는 보도다。權座에 오르기전부터 브레즈네프의 흉내라도 내려는 것일까、아니면 人民의 怨聲이 두려워서 마련하는 防彈用일까。

HAPPY TIME

전신전화 이용안내

서울시내 우체국에서 취급하여오던 전보, 시외통화 접수업무를 83년 2월 1일부터 당공사에서 인수운영케 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그 취급국이 변경됩니다.

●야간업무 폐지우체국 (단, 평일주간에 한하여 취급함)

남서울, 서부서울, 구로단지, 성북, 동대문, 서대문, 마포, 광명, 오류동, 공항동, 상계동, 성동, 용산

●주·야간업무 취급 전신전화국 (연중무휴)

신설국	불천, 불광, 개봉, 구로, 면목공릉분국, 미아, 화곡양서분국, 원효, 동대문행당분국
기설국	당산, 청량, 천호, 잠실, 광장, 영동, 화곡, 서울중앙전신전화국 및 서울중앙전신국

●주·야간업무취급우체국 : 서울역전우체국 (연중무휴)

1983년 1월29일

한국전기통신공사 서울지사장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416) 532-2727

경영회계사 이영철 344 Bloor St, W Suite 304 921-1294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은퇴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YOUNG SOOK'S 보석상

▲각종보석 ▲다이아몬드 품질보장 ▲최저가격 ▲뉴디자인 ▲보석개조 교환매매 ▲보증서

215 YONGE ST. 368-7961(B) 690-5217(R)

제2회 토론토지구 한국인교회학교

교사 연합수련회

제2세교육의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교회학교 교사및 관련자들의 자질향상과 신앙수련및 상호협조를 위해 아래와 같이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1. 일 시 : 1983년2월5일(토) 오전8시~오후8시
2. 장 소 : 새한장로교회(Tel. 482-4577) 105 WILSON AVE., TORONTO, ONT. ※York Mills 서브웨이에서 96번 96A빠스를 타고 두번째 Bus Stop에서 내려 서쪽으로 조금만 더 가면 남쪽에 교회 보임. Hwy401에서는 Avenue Rd.로 나와 Wilson에서 Left Turn 하세요.
3. 대 상 : ①교회학교 유·초·중·고·대학부(청년부)교사및 교사희망자. ②당회 교육부장, 교육담당목사, 학부형. ③대학부(청년부) 회장단및 회원.
4. 참가비 : 1인당 $10.
5. 강사및 강의 내용(프로그램에 따른 순서임)
   ①안병한 목 사(개회 예배 설교)
   ②조경자 목 사(인간성장에 따른 기독교교육—영아에서 노년까지)
   ③홍순관 목 사(성공적인 교회학교 여름 캠프)
   ④이상철 목 사(학생회 육성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
   ⑤이순희 선 생(유치부 노래및 율동)
   ⑥임명희 전도사(유·초등부 노래및 율동)
   ⑦정경진 전도사(대학부 소구룹 성경공부를 위한 프로그램)
   ⑧나희수 전도사(시청각교육및 교재작성법)
   ⑨김애영 전도사(효과적인 성경교수법과 교안작성법)
   ⑩정관일 목 사(헌신예배 설교)
6. 문의및 연락처 : 이용술장로 (R)630-4902, (B)633-9420 Ext.486 공병화집사 (R)626-5382
7. 점심 : 기독여성회 연합회 제공 간식 : 영락교회·침례교회·제일교회 찬조 ※베이비 시터 준비되어 있음.

주최 : 토론토지구 한국인교회학교 교사연합회 후 원 : 교역자회·장로연합회·기독여성회 연합회

北傀、日에 超호화車 99대주문

日에 密秘裡…防彈유리에 컴퓨터까지

【東京=聯】북괴는 지난74년이후 외화사정이 악화, 對西방외채가 누증되고 채권국으로부터 채무이행독촉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7억4천6백만엔을 들여 金正日전용 특수차량99대를 일본에주문한것으로알려졌다。

28일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북괴가 일본의 자동차 메이커인 닛산(日産)자동차에 비밀리에 주문한 자동차 9대(日貨 2억4천6백만엔)는 방탄유리와 컴퓨터장치까지 갖춘 초호화판으로 이미 제작을 끝내 金正日(2월16일)의 생일선물로 곧 전달하게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단계에 있는 9대의 차량은 51인승 닛산관광버스를 개조, 화장실까지갖춘 호화판 침대차2대, 식당차2대 주방차2대등 6대 ▲방탄및 컴퓨터장치까지 갖춘 4인승 승용차1대 ▲24인승및 40인승 경호차각 1대등인데 승용차 프레지던트는 일반가격의 4배가 넘는다는것。

북괴는 이외에도 방탄유리와 무전기를갖춘 金正日경호전용 마이크로버스(26인승) 50대와 4인승 웨곤50대(日貨총5억엔)도 닛산에주문, 현재 비밀리에제작중인데 지난해10월1일일본의對북괴무역상사인「朝日수출입상사」초청으로북괴무역대표단을가장, 일본에입국한 북괴기술자들이 자동차제작현장을감독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

◇日本닛산(日産)자동차의 EH252D형 프레지던트승용차。 北傀의 金正日전용차로 쓰기위해 이 승용차를 방탄유리와 컴퓨터까지 갖춘 특수차량으로 개조토록 주문했는데 가격은 일반가격의 4배가 넘는 2천2백만엔⊕日本자동차 메이커 닛산(日産)의 RA51형(51인승) 관광버스。 북괴는 이버스를 특수하게 개조, 화장실까지 갖춘 침대차 식당차·주방차 각각2대씩 모두 6대의 특수차량을 金正日을 위해 주문했다。⊖ 【東京28日=聯】

蘇、中歐「非核지대」제의

타스通信보도 "東·西경계 중심 5~6백km"

야전核武器 전면철거

◇험난한 軍縮협상 위한 美·蘇대표의 악수

폴·니치美國수석대표㊥가 27일 2개월만에 재개된 제55차유러미사일감축협상에 참석하기위해 제네바의 蘇聯외교대표부에 도착, 蘇聯측수석대표 율리·크비친스키와 악수를 나누고있다。【제네바27日 AP電送=聯合】

【모스크바=聯】소련은27일 중부유럽에서 모든야전핵무기를 철수시켜 이지역을비핵지대로 만들것을제의했다。

소련은 관영타스통신으로 보도된 한성명을 통해 중부 유럽비핵지대의 폭을 5백~6백km로하고 그중심을 NATO(북대서양 조약기구)와 바르샤바조약기구의 경계선에 두어야한다고말했다。

타스통신은 소련의 이같은 제의가 중부유럽에 야전핵무기를 배제한 폭 3백km의 비핵지대를 설치하자는 스웨덴 정부의 요청에 대한 답변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스웨덴은 올로프·팔메수상을 위원장으로한 동·서문제 위원회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작년6월 비핵지대의 설치를 건의한 보고서를 발간한과 바르샤바 조약기구 회원국들에게 비핵지대설치 요청서를 보냈었다。

야전핵무기에는 단거리 전술미사일과 핵탄두포탄이 포함되며 소련의제의대로 폭5백~6백km의 비핵지대가 설치될경우 거의 동서독 전체가 여기에 들어가게된다。

타스통신은 이날 발표된성명이 스웨덴에 보내는 것이라고 소련의 비핵지대설치제의를 중부유럽 상호감군에관한 빈회담제의에 포함시키자고 아울러 정의했다。

【브뤼셀=聯】서방은 중부유럽에 야전핵무기를 배제하는 비핵지대를 설치하자는 소련의제의를 받아들일수 없을것이라고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관계자들이 27일 밝혔다。

이관계자들은 蘇聯이 非核地帶의설치를 제의한 성명전문을 신중하게 검토할수있게 되기를 바라지만 바르샤바조약기구가 나토에대해 재래식 군사력의 우위를 지키고있는 한 서방이 소련의 제의를 받아들일수는 없을것같다고 말했다。

엔터프라이즈 日寄港

16년만에…3월 韓美훈련때

【東京AP=聯】美7함대소속 核航母 엔터프라이즈호(7만5천톤)는 다음달부터 서태평지역에서 실시되는 韓美합동군사훈련에 참가하는동안 오는 3월20일께 일본의 사세보(佐世保)항에 5일동안 기항할것이라고 日本정부소식통들이 28일 말했다。

엔터프라이즈호의 사세보 기항은 1968년1월이래 15년만에 처음이다。

정부소식통들은 미국이 작년 12월 일본정부에 이核航母의 入港을 비공식 루트를 통해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일본야당들은 오래전부터 일본의 非核3원칙을들어 美核추진항정의 일본入港을 반대해왔다。

한편 일본신문들은 일본정부가 비밀리에 엔터프라이즈호의 入港에 대비한 준비작업을진행중이라고 보도했다。

IPI 터키에抗議

쿰紙폐간·2명투옥

【런던=聯】국제신문인협회(IPI)는 터키정부가 국내일간 쿰후리예트지를 폐간하고 편집인 2명을 투옥한데대해 27일 터키정부에공개항의서한을 보냈다。

8만5천부를 발행하는 중도좌파 일간인 쿰후리예트지는 지난 24일 국가안보에 해로운 기사를 썼다는 이유로 계엄법에 따라 무기한 폐간되어 있다。

IPI는 케난·에브렌대통령 앞으로 보낸 이 항의서한에서 터키정부의 그같은 조치는『언론자유와 人權을 다시금 침해한것』이라고지적, 이에대해 실망과 놀라움을표시했다。

피터·갤리너 IPI사무국장 명의의 이 서한은 쿰후리예트지의 편집인 옥타이·아크발씨와 오카이·고넨신씨에게 선고된 3월징역형을철회하고 그들의신분을 복권토록 에브렌대통령에게 요구했다。

이 情報기관에 時限폭탄

PLO통신 수십명殺傷 주장

【니코시아=聯】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는 27일 PLO소속 게릴라들이 시한폭탄을 매설, 이스라엘군 수십명을 살상했다고 밝혔다。

PLO의 WAFA통신은 PLO대변인의 말을 인용, 그같이 전하면서 폭탄이매설됐던 장소는 텔아비브근처 파르사바 정착촌에있는 이스라엘 정보기관이었다고 덧붙였다。

WAFA통신은 이보다 앞서 한군사대변인의 말을 인용, 아시켈론근처에있는 키리아트 말라치존에서 PLO의 게릴라부대가 21일 차량폭파로 지휘부를 부셨, 수십명의인명을 살상시켰다고주장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한경찰 대변인은 이런 PLO의 주장을 일축하면서『키리아트 말라치』에서 발생한 폭파사건은 그지방 범죄자들이 저지른 소행이었다고 말했다。

2개월滯留 관광객

印尼정부 비자免除

【자카르타=聯】인도네시아정부는 2개월간 체류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비자를 면제해주기로 했다고 로에스민·누르자딘 통신상이 27일 발표했다。

누르자딘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관광관계 장관및 책임자들간의 회의에서 그같이 결정되었다고 말하고 이조처의 적용을 받는 국가는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회원국, 일본·한국·호주·뉴질랜드·미국·캐나다·홍콩및 歐共市(EEC)회원국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국내 보안문제의 점에따라 이조처를 오는 4월부터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新聞編輯人協會 회장에 李禹世씨

韓國新聞編輯人協會는 28일 하오 세종문화회관 강당에서 제31회 정기총회를 열고 새회장에 李禹世(서울신문 主筆), 副會長에 宋庸植(聯合통신 편집국장)、沈相基(中央日報편집국장)、安德煥(大韓日報편집부국장)을 선출하고 監事에 曺淳煥(한국일보 論說委員)、李光碩(慶南新聞 論說主幹)씨를 선임했다。

또한 총회는 運營委員에 鄭泰成(每經편집국장)、魯英一(文化放送 보도국장)、李鎭永씨를 補完했다。

寬勳클럽 새총무 南時旭씨를 선출

언론인 친목단체인 寬勳클럽은 27일밤 26기총회를 열고 제27대총무에 南時旭씨(東亞日報편집부국장)를 선출했다。

人事異動

보사부

▲국립麗州정신병원장 李忠敏(全南도립정신병원장)

本社來訪

▲鄭英讓씨(國民投資金融社長) 黃斗演씨(同副社長) 新任 ▲嚴大燮씨(大韓圖書館研究會 會長) 李璟薰씨(〃副會長) 李春熙씨(〃사무국장) 李庸男씨(〃사무국장) 大韓圖書館研究會창립인사차

記者의 눈 — 마이·카

마이카의 꿈이 멀지 않은 것 같다。70년대 후반부터 우리 주변에서도 마이카란 말이 심심찮게 들려오기 시작했으나 남의일처럼 생각되던것이 정부의 미니차개발구상으로 실현단계에 들어섰다。

정부의 구상은 85년까지 2백만원대의 승용차를 내놓겠다는것이다。2백만원짜리라면 웬만한 샐러리맨들도 한번쯤「내차」를 넘볼수 있는 수준이다。현재 국산 소형 승용차 값이 5백30만원대이니까 절반값이면 장만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요즘 서울거리를 걷다보면 여성 오너드라이버들을 심심찮게 볼수있다。그만큼 자가용 승용차 특히 오너드라이버들이 늘어난 것이다。우리나라는 1인당 GNP가 1천7백달러에 이르렀으니 자가용이 늘어나는것은 당연한 일이다。1인당 GNP가 5백달러를 넘어서면 자가용을 찾게된다는것이 西歐사회의 경험이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는 소득수준에 비해 자동차 보급률이 많이 떨어져 있다。80년말 기준으로한 자가용 보급률(인구 1천명당)을 보면 美國이 5백42명、西獨 3백77명、日本이 2백3명이고 우리와 소득수준이 비슷한 臺灣이 11·2명、우리보다 못한 필리핀이 20명、泰國이 11·3명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6·5명에 불과하다。

자가용보급이 이처럼 부진한것은 차값이 비싸고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도 많이 들기때문이다。

【崔相泰경제부차장】

社說

技術혁신이 優先과제

—先進의 速度、그開發投資에 달렸다

부존한 부존資源에 反해서 우수한 人力자원을 많이 가진다고 있는 우리 처지로서 꼭 해야할일은 첫째도 과학技術진흥이요 둘째 또한 그것밖에 만 方途가 없음을 깊이 인식해야 하겠다。全斗煥대통령은 28일 올해 첫번째 기술진흥확대회의를 주재하고 李과학기술처장관으로부터 앞으로의 기술진흥시책방향과 아울러 情報化시대의 意義등에 관한 보고를 들었다한다。

그내용은「先進祖國」을향한 80년대 전략으로서 금년부터 거국적인 기술개발체제를 정비구축하고 全産業에걸쳐 기술혁신의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향후5년간 약 2천억원의 財政자금을 투입해서 核心據點기술의 집중적 개발과 고급기술人力의 확보에 주력하고 아직도 취약한 民間의 기술개발능력을 빠른 기간안에 성숙토록 촉진시켜 나간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는 중점施策으로는 첫째 정부와 공공기관、민간에걸친 기술개발투자의 多元的 확대、둘째 기술需要의創出을 위한 정부購買정책등의 活用、세째 기술혁신의 심화·확산 및 기술개발 行政체제의 效率化를 제시하고있다。

오늘날 半導體·컴퓨터 로보트 生命工學 新素材등으로 표현되고 있듯이 과학 기술 특히 새로운 산업혁명과 직결되는 고도기술의 독자적인 연구개발 없이는 지금처럼 치열한 국제경쟁 환경아래서 감히 다른나라를 앞서는것은 고사하고 현재수준으로 살아남기조차 어렵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한편며 先進한국을 指向함에 있어서는 尖端기술을 포함한 선진국의 고도기술을 단시일내에 소화·흡수해야할 뿐더러 우리 스스로의 기술적축적과 연구개발을 바탕으로 하는 독자적인 기술능력의 배양이 무엇보다 긴요한 국가적 과제임에 틀림없다。왜냐하면 반도체·컴퓨터나 생명공학등에서 보는것처럼 벌써부터 선진국에서는 고도기술의 對外移轉을 완강하게 기피하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설령 비싼 기술사용료를 지불하고 또는 정치외교적 특별교섭에 의하여 기술을 傳授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대부분 이미 낡은 기술이거나 핵심적 기술을 제외시킨 것들이어서 쓸모가 적게 마련이다。

만약 이를 뒤떨어진 기술에만 의존해서 우리산업을 이끌어간다면 국제경쟁면에서 번번이 敗北를 맛보게 될 것이다。더구나 컴퓨터를 중심으로한 情報社會에서는 자체기술 없이는 점점 뒤지게 마련이다。그러므로 외국으로부터 더이상 도입를 바랄수 없는 첨단기술을 포함한 고도기술을 정부 공공기관 민간기업은 물론 대학이나 국민개개인에 이르기까지 거국적으로 일치협력하여 연구개발해야할 필요는 절실한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벌써부터 GNP(국민총생산)의 2%이상을 과학기술연구개발에 투입하고 있으며 특히 정부役割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自由經濟아래서 기술의 연구개발도 민간기업이나 연구기관에 맡겨도 무방할듯이 보이지만 실상은 정부에 의한 투자조정과 협동개발조직 그리고 관수購買등에 의한 수요창출 및 販路보장이 불가결한것으로 인정되고있다。

이렇게 살펴볼때 정부가 이번에 들고 나온 기술진흥전략 쪽 다원적인 개발투자의 촉진과 수요창출정책의 擴散등은 타당한것으로본다。특히 우리 실정에 알맞는 據點기술을 중점 개발한다는 것은 능률적인 접근방법으로 평가된다。

다만 기술의 연구개발을 자극함에 있어서는 정신적인 자부나 명예와 더불어 물질적인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로 민간기업들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유인책이 마련돼야 할것으로 본다。

동시에 기술개발이란 필경은사람이 하는 일인만큼 교육면에서 고급기술인력을 효과적으로 배출해야 할것이다。그리고 선진국에서 技術系出身社長을 重用하고 있듯이 우리도 경영관리계통아닌 기술계통출신의 기업경영책임자를 보다 존중하는것이 기술진흥을 위한 또하나의 지름길이 될것임을 일러두고 싶다。

無罪보상의 新聞공시

—人權擁護 위해 적극 活用되어야

죄를 지은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무죄확정일로부터 1년이내에 구속기간중의 억울한 옥살이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보상금을 청구할수 있다。

이러한 청구가 정당하다하여 법원이 이 청구를 받아들이면 보상금을 지불하는 외에 2주일안에 그 내용을 官報에 제시하게 되어있다。

그런데 일단 억울하게 누명을 썼던 사람으로서는 讀者層이 좋은 범위로 한정되어있는 官報에만 그 사실이 보도되기때문에 그의 명예회복이 덜되었다고 생각할법한 것이다。81년12월17일부터 시행돼 오는 刑事補償法改正法律은 이사리를 감안하여 형사보상을 받은 사람은 동이상의 日刊新聞을 지정, 각각 한번씩 그 보상받은 사실을 이들 신문에 公示하여줄 것을 신청할수 있게 하였다。

이경우 법원은 그런 신청이 있은뒤 30일이내에 요구대로 신문에 광고할 의무를 지는 것이다。改正法에 의한 이 새제도에 따라 자기누명을 벗고 보상금을 타게된 사람이 法院에대하여 신문공시를 청구한 事例가 드디어 생겨났다。

이미 보도된대로(28일자 本報11면) 무고혐의로 재작년 9월 2일부터 87일간 옥살이를하다 풀려난뒤 작년6월 무죄로 확정된 李某氏는 보상금을 받게된 사실을 두日刊신문에 내달라고 청구하여 27일 法院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형사보상제도는 두가지로 人權옹호상 중요한 역할을 한다。그 첫째는 억울하게 갇힌 일에 대하여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는 사실자체가 인권침해를 달래주는 상당한 정도의 위안으로 될것이 기때문이다。그렇지는 혐의가 무죄로 판명되면 보상금을 주어야하는 만큼 그와같은일로 國庫金을 지불하는데 따른 財政的損失을 최소한으로 줄이려는 國家的欲求때문에 수사당국으로선 당연히 혐의자검거·구금을 신중히 하려고 노력하게 될것이다。그만큼 人權은 신장된다고 할수있다。

新聞公告는 그와같은 人權옹호의 정도를 더욱 높이게 한다。무죄사실이 당국의 公信力에 의하여 신문에 보도됨으로써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위로를 받을뿐더러 新聞公告 또한 국가의 상당한 公告料지출을 수반하는것이기 때문에 보상금지출이 지니는 효과와 똑같은 이치로 人身구속을 그만큼 더 신중히 하는 계기를 마련케 될것이다。

李氏의 이번 新聞公示청구는 새제도실시후 첫번째라는 점에서 劃期的인것이다。앞으로 그와같은 청구가 연달아 뒤따를것으로 기대된다。권리위에 잠자는 사람은 法의 보호를 받지못한다는 格言이 있다。형사보상과 그 사실의 公示는 위에서 살펴 본대로 두가지면으로 두번에 걸쳐 人權을 회복·옹호하는 국가적제도며 장치인것이다。

보상이나 그사실을 신문에공시할 필요성이 全無한상태야말로 수사당국에 의한 本意아닌 人權침해가 근절된 이상적인 상태이다。그러자면 구속수사는 더욱 과학적이어야하고 不拘束수사가 널리 보편화해야할것이다。동시에 보상청구제의 활용과 그 사실의 신문공시청구 사례가 많아질수록 그와같은 이상적인 상태의 실현을 간접적으로、그러나 실속있게 촉진케될 이치다。

현형사보상법상 보상금은 하루에 5천원~8천원 범위안에서 구금종류·기간의 장단·기간중의 재산상실·정신적고통·신체적손상등을 참작하여 결정한다。이번 李氏의 경우 보상된 보상금은 87일구금에 대하여 62만5천5백원이므로 대충 하루에 7천2백원꼴이다。

무죄보상사실을 신문에 공시하는事例는 우리나라 刑事재판사상 初有의 일인만큼 그 의의가 실로 획기적임을 거듭 지적해두고 싶다。바로 그 보상과 보도청구제도는 최근 刑事재판에서의 증거주의강화와 아울러 刑事피고인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늘리는데 장차 크게 기여하겠기 때문이다。

政局往來

◆淨化誌가 국민의表를 역할하도록

全斗煥대통령은 28일낮 영부인 李順子여사와 함께「淨化」誌 관계자들에게 오찬을 베푼자리에서『淨化誌가 창간 2주년이 됐는데, 제5공화국의 나이와 꼭같다』며『淨化誌가 아직도 부정부패심리를 갖고있는 사람들에게 반성의 계기를 만들어 주어 국민들의 소통역할을 하도록 해달라』고 당부。

全대통령은『淨化誌가 내용이 참 좋은 글들을 많이 실어 內子도 애독자의 한사람』이라고 소개하면서『그러나 아직도 조금 어렵고 전문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일반독자들도 모두 쉽게 이해할수 있도록 보다 쉬운 글들을 더욱 많이 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全대통령은 또『「淨化」란 책이름은 너무 딱딱한 느낌을 주고있어 좀 부드러운 이름으로 바꾸는것이 어떻겠냐』는 의견을 제시。

영부인 李여사도『淨化誌에 대해 처음에는 별로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마음을 끄는 좋은 글들이 많아 읽다보니 나도모르게 애독자가 돼 흐뭇한 감회를 듣고 평생교육을 받는』『힘이 든다』고 淨化誌에대한 소감을 피력。

◆국민보다 앞선 意識改革있어야

李載灐民正黨대표위원은 28일 상오 충북忠州지구당(위원장 李海元의원) 개편대회에서『民正黨은 명령하고 통치하는 집단이아니라 국민과더불어 함께가는 집권당』이라고 黨의성격을 설명。

그는 이어『共和黨이 쓰러진것은 국민들이 두려워할만큼 힘이강했던 탓도있지만 이힘이 민주적으로 형성된것이 아니었기때문』이라면서『民正黨은 국민과 화합하는 힘을 만들어야하며 그러기위해서는 국민보다 앞선 우리의 의식개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政治人가는길순탄할수만없어"

28일상오 安東문화회관에서 열린 民正黨安東지구당(위원장 權正達의원) 개편대회에는 중앙당직자론 金瑢泰대변인만 참석했지만 20여명의 소속의원들이 壇上에 자리잡아 權의원의 영향력을 과시했다。 이날 權의원은『創黨이후 개혁을 추진하고 헌정질서 확립에 앞장서온 나날을 돌이켜볼때 태양을 우러러 양심에 한점 그늘지지않게 살아왔다』고 지난2년을 회고한후『그러나 우리사회는 不信의 汚染度가 높아 좌절과 고통과 실망을 안겨주기도 했으나 정치인이 가는길은 순탄할수만은 없어 인내와 수양을 쌓는 기회로 삼겠다』고 각오를 피력했다。

權의원은 이어『배가 進水한뒤 독직지름길해 방향타를 잡았으나 바로 통합하면서 키를 넘기고 다른 부서에서 順航을 돕고있다』고 사무총장직 사임경위를 설명한후『본인은 숙명적으로 제5공화국 역사에 책임을 져야할 사람이므로 후날 역사에 부끄럽지않은 정치인이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

"共和黨이 쓰러진 것은 힘이 너무 强했던 탓…"

◆우리主唱하는것 正論的 민주주의

28일 열린 民韓黨의 서울 西大門·恩平지구(위원장 孫世一의원) 개편대회에는 柳致松총재를 비롯, 소속의원 81명중 57명이 참석하는 개편대회 시작이래「최대의 盛況」속에서 진행。

특히 이날 대회에서는 당지자나 元老대신 40代 少壯의원들이 줄이어 登壇, 정부 여당을 겨냥한 強度높은「熱辯」을 吐해 뜨거운 분위기를 이뤘다。

이날 柳총재는 치사에서『우리가 主唱하는 민주주의는 主權을 기본으로 하는「正論的 민주주의」이지『畸形的 민주주의』는 결코 아니다』고 강조하면서『지금껏 참을만큼 참았지만 이제부터는 민주주의의 참 뿌리를 내리는데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다』고 다짐。

孫위원장은『비밀주의의 논리가 공개주의로 환원돼야 하며 一絲不亂의 기운이 공정한 경쟁의 분위기로 회복돼야하며、權力집중 체제가 權力분산 체제로 회생돼야 한다』고 역설。

◆恐龍滅種 힘이부족해서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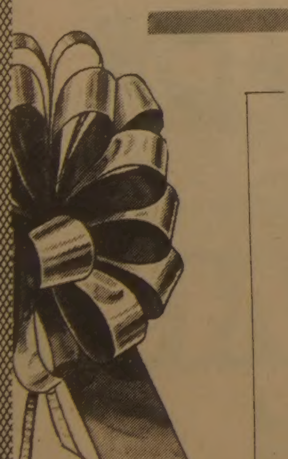
개편대회에 참석할때마다「內助의功」을 칭찬해온 丁來赫국회의장은 28일상오 李鍾贊총무와 함께 참석한 전북茂州·鎭安(위원장 黃寅性의원)지구당 대회에서도 夫唱婦隨를 당부。

丁의장은 이날『가난한 군인의아내로、청렴결백한 공무원의 아내로 고생속에 內助를 해온 黃의원의 부인에게 당을 대표해서 감사의 뜻을 전하겠다』며 黃의원의부인을 단상으로 불러 자신이 받은 꽃다발을전달했다。

한편 李春九는『거대한 恐龍이 멸종한것은 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기몸을 주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1백만 당원의 조직도 중요하지만 정책개발의 머리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鎭安=盧爀煥기자】

HERALD TRAVEL SERVICE

1983년도 천우여행사 인류고대문명 요람지 탐방 여행안내



에집트·이스라엘·회랍

출 발 : 1983년 4월 15일(금)
귀 환 : 5월 7일(토)
기 간 : 23일 21박
방문지 : 에집트8박, 이스라엘7박, 희랍5박, 빠리 1박
요 금 : $3,600
◉왕복항공료및 지상교통비
◉관광및 입장료
◉숙박 1급호텔(1실2인)
◉식사(대륙식 아침, 저녁—빠리는 아침만)
◉호텔 세금및 팁
신 청 : 등록 — 1983. 2. 28 $500 불입
마감 — 1983. 3. 15 잔액

남 미

출 발 : 1983년 5월 14일(토)
귀 환 : 5월 29일(일)
기 간 : 16일 14박
방문지 : 부라질5박, 알젠틴2박, 칠레2박, 페루5박
요 금 : $2,900
◉왕복항공료및 지상교통비
◉관광
◉숙박 1급호텔(1실2인)
◉식사: 부라질—부라질식, 아취/페루—쿠즈코에서 3식
◉호텔세금및 팁
신 청 : 등록 — 1983. 4. 1 $500 불입
마감 — 1983. 4. 15

중 국

출 발 : 1983년 7월 10일
기 간 : 17일 15박
방문지 : 홍콩1박, 광주1박, 황주2박, 상해3박, 봉천2박, 기차1박, 할빈2박, 북경3박.
요 금 : $3,600
◉왕복항공료및 지상 교통비
◉관광
◉숙박1급호텔(1실2인)
◉식사1일3식(홍콩제외)
신 청 : 등록 — 1983. 4. 29 $500
마감 — 1983. 5. 31

＊상기요금은 토론토를 기준으로 함.
＊요금은 변동할 수 있음.

기타 상세한 문의 요망은

HERALD TRAVEL SERVICE

Tel : (416)366—1188 (R) (416)651—8081

SHERATON HOTEL(지하상가)
123 Queen St. W. Toronto M5H 3M9(시청앞)

다른 도시에서도 합류 가능하며, 미국내 교포참여 환영

메아리

三度

헌법을 비롯한 거개의 우리나라 법률이 그러하지만, 地方自治法만큼 기구한 법률도 드물다.

이 법이 처음 제정·공포되기는 49년 7월 4일이었으나, 그해 12월15일에 이미 1차 개정이 있었다. 정부가 지방선거를 시행하지 않은 탓으로, 새로운 경과규정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런 상태가, 6·25의 전란마저 겪쳐, 2년9개월이나 계속됐다.

地方自治法이 온전하게 시행된 것은 52년 4월25일의 市·邑·面, 5월10일의 道의원선거가 있은 뒤였다. 전쟁중의 自治制실시가 가상하듯 하지만, 대통령선거를 앞둔 伏線이 깔린 것이었다.

이 뒤 지방의회가 釜山 정치파동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잘 알려져 있다. 그것이 행정의 혼란을 가져 온 것도 사실이다. 지방의회가 생긴이래 3년사이 17市·72邑·1천3백8개面에서 자리를 물러난 市·邑·面長이 1천1백68명, 그중 의회의 不信任결의에 의한 사직이 66명, 의회해산이 18건이며, 나머지의 단체장 사임소동도 대부분이 의회와의 충돌에서 연유했다.

그리하여, 56년 2월과 같은해 7월, 12월등 한해사이 연거푸 번의 2~4차 개정이 있었다. 표면적인 이유는 행정의 혼란을 막는다는 것이었으나, 역시 대통령선거와 유관하다. 한차례 번개정으로 市·邑·面長의 間選을 直選으로 바꾸었다가, 直選된 단체장이 채 자리를 잡기도 전에 任命制로 바꾸었으니, 一絲不亂한 선거태세란 비난을 받아 싸다.

4·19뒤에도 법은 대수술을 받았고 그에 따라 60년 12월 지방선거가 일제히 실시됐다. 그러나 이듬해 5·16이 나면서 제6차개정을 거친 地方自治法의 반쪽은 기나긴 冬眠상태에 접어 들었다.

이 것이 대강 훑어본 地方自治法史다. 법을 만든지 33년 6개월사이, 전면 시행되기는 9년남짓뿐이다.

이렇게 된 까닭은, 앞으로의 地方自治를 어떻게 할 것이냐, 아니면 도대체 地方自治를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를 생각함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그 원인의 첫째는 政治文化·政治意識의 미숙이다. 섭섭하지만 그 것은 「民度」에 관계된다.

그러나 地方自治 실패의 멍에기를 「民度」에 만 돌릴 수가 있을까.

우리나라 地方自治法은 고작 9章 1백62조다. 프랑스의 自治法이 6백조를 넘고, 일본것은 근3백조의 本文과 7개의 別表로 구성된것과 비교해 보기 바란다. 法制의 미비가 있음것은 당연한 짐작일 것이다. 처음부터 제도가 잘못된 것이 地方自治 실패의 더 큰 요인이다.

법과 제도가 이렇게 된것은 「民度」보다 「官度」의 문제다. 地方自治의 경험과 견문, 입법자료가 빈곤한채로 법을 만들고, 식민통치 이래의 質낮은 官治사상으로 그것을 시행하려 한것이다. 그 결과는 식민통치 잔재에 「法의 베일」을 씌운것 뿐이다. 우리가 경험한 실패는 自治의 실패가 아니라, 「粉飾한官治」의 실패다.

끝으로 들것이 정치하는 사람들의 「政治度」다. 선거때마다 법을 이랬다 저랬다 하고, 政爭을 지방의회로 연장한것 이 그들이다. 그사이 경위로 보아 긴설명은 필요없다.

근래 地方自治논의에서, 여·야가 共同研究를 얘기하고 있음을 반갑게 듣는까닭은, 地方自治실패의 원인이 이렇게 복합적임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地方自治의 실시가 몇개 特例法의 폐지만으로 될 것이 아니요, 합리적인 제도를 새로 꾸며야 한다면, 그를위한 研究가 있어야 함도 당연하다.

그러나 어정쩡한 구석이 없지는 않다. 그것은 일부정치인이 말하는 「그러나의 論理」다. 地方自治는 해야한다, 그러나 先行條件이 있다는 따위다. 일부 행정관료도 동조하는 그 말투는 「政治度」 「官度」를 접어둔 「民度論」으로 들려 불쾌하다. 그 보다는 그러나의 論理가 작용하여, 「會而不決」 「決而不行」 하다면 「共同研究」는 하되 과 무엇이 다를까도 걱정이다.

멍에기 같은 「民度論」을 들으며 생각하는 것은 34년의 時差다. 국민소득 60달러, 연명을 위해 숨가쁘던 시절의 「民度」와 국민소득 2천달러, 「先進」을 바라보는 지금의 「民度」를 같은 평면에 놓을수는 없다. 30여년 지방행정을 익힌 「官度」도 합당한 地方自治제도를 창출하고, 그 아래서 능률을 확보할 만큼은 향상되었다고 믿는다. 「民度」를 말하는 정치인들의 「政治度」도, 각 정당의 政治弘報대로라 믿고 싶다.

그렇다면 地方自治의 여건은 익을대로 익었다. 地方財政의 自立度를 걱정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나, 그것은 財源을 배분하기 나름이니, 不動의 장애물은 아니다. 오히려 그 조정은 「政治度」와 「官度」에 달린 것이요, 그것으로 납세자인 국민의 「民度」를 낮잡아 볼 것은 없다.

30여년 時差가 있기에, 여·야간 地方自治의 「共同研究」가 일찍 이뤄지고, 그 결론이 쉬 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그 같은 時差를 반영한 지방행정 主務당국의 판단과 연구방향도 하루속히 제시되었으면 한다.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各部處업무보고의 내무부 차례가 기다려지고, 그내용이 궁금해진다.

金昌悅 <編輯委員>

美國은 아시아 大陸을 利益의 要地로

슐츠의 極東나들이 무엇을 남길것인가

미국에서 요즘 자주듣는 소리중의 하나가 아시아가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곳이며 앞으로의 미국 이익에 극히 중요한지역이란 얘기다.

물론 아시아쪽을 향했을 때 그보다 더 높아지지만 다른곳을 향했다고해서 결코 낮아지지도않는 그런이슈가 되고있다. 미국에서 보는 아시아는 유럽과함께 소련에 대결하는 결정적 要地이며 그야말로 성장하는 잠재력을 가진 시장이다.

지난해 6월에 취임, 아직 채1년이 안된 조지·슐츠국무장관은 그간 중동 유럽, 對蘇군축협상등 긴박한 문제속에서 보내야했고 그가다음으로 발길을 내디딘곳이 아시아 訪問, 즉일본, 중공, 한국방문이다.

슐츠장관은 29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출발, 30일부터 2월2일까지 일본, 2월2일부터 6일까지 중공을 방문하게 되며 6일부터 3일간 한국을 방문하게 된다.

27일 슐츠의 아시아방문을 설명한 행정부 고위관리는 일본에서는 주로 나까소네 訪美때 협의된 문제들에 대한 후속토의가 의제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즉 무역과 방위문제이다. 나까소네수상이 미국을 떠난후 남은 얘기는 그가 미국의 요구에 부응해 취한 몇가지 조치가 양국간 문제 해결을 위한 첫단계이며 이첫단계가 올바른방향으로 취해졌다는데 환영한다는 것이었다.

미국측은 이런 조치들의 스피드·업을 요구하고 있다. 2백억달러의 무역적자 완화를 위해 더 과감한 수입장애를 제거해야 하며 GNP 1%의 방위비 지출은 더 늘려야 한다는 요구이다.

그러나 슐츠장관의 訪日에서 보다 새로운 차원에서 논의될 의제는 국제사회에서 「역할의 분담」이며 이것은 무역이나 방위수준을 떠나 앞으로도 일본에게 끊임없이 요구하고 협의해 나가기를 희망하는 사항이다.

바로 이런 차원에서 미국은 對蘇군축협상지세, 중동평화방안, 국제경제, 개발국에대한 원조문제등을 광범하게 협의할것으로 보인다.

중공의 경우 뉘앙스는 좀 다르다. 上海성명후 10년간 어떤 의미에서 상승만을 계속해 온 美·中共관계는 악화라기보다는 처음으로 정체기를 맞고있고 이의 해소가 슐츠의 당면한 과제인것도 틀림없다.

고위관리는 슐츠가 중공 지도부와 처음으로 접촉을 갖는다는데 큰의미가 있으며 여기서 양국관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할것이라 말했다.

蘇와 對決 최첨단地域

貿易逆調개선등 打診

그간 정체된 양국관계를 가장 상징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것이 최근의 섬유쿼터문제이다.

최근 미국의 한 회사가 중공에 대해 군사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한 인공위성지상국을 판매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신문들은 이것이 슐츠의 중공방문을 겨냥한것이라 분석하기도 했었다.

중공은 무역과 과학기술 외에도 에너지부문에도 상당한 관심을갖고 있는것으로 알려졌으며 양국고위층의 상호방문, 즉 레이건의 중공방문과 趙紫陽의 미국방문 문제도 협의될것으로 전해지고있다.

슐츠는 중공에서 바로한국으로 오는것으로되어있다.

이날 브리핑한 고위관리의 말을빌면 韓美양국은 그 어느때보다 좋은관계에 있으며 따라서 긴급한 이슈는없다고 전제하고 가장 중요한것은 한국에대한 미국공약의 재확인이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韓美간에는 방위산업의 지원, 군사판매차관(FMS)의 증액및 조건개선과 원자력등 기술협력, 한국산 신발 철강 섬유류에 대한 수입규제조치 완화등의 문제가 걸려있다. 한편 지난해부터 간헐적으로 거론되어온 레이건대통령의 아시아순방과 訪韓문제도 논의될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국 국내문제의 발전에 미국이 고무되고있으며 정치적민주주의와 人權문제에 있어서의 발전을 미국이 환영하고 있다는것을 한국은 잘 알고있다』고 이 관리는 말함으로써 이런문제들에대한 미국의 견해표명도 있을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당국자는 南北대화문제가 논의대상으로 제기될수 있을것이라 말하고 南北대화에서 한국의 대화추구방식을 미국은 지지하고 있으며 한국정부가 이를위해 외교적 노력을 확대해 나가는것을 환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방문는 수행원들의 면면을보면 이번 방문의 성격이더욱명확해진다.

국무성에서 폴·월포위츠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차관보, 정치군사국장 조나탄·휴, 해군소장, 데이비드·램버트슨한국과장 그리고존·휴즈 대변인, 국방성에서리처드·아미티지 동아시아 태평양담당 부차관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소속 개스턴·시그루 보좌관 등이 공식수행원으로 되어있다.

이들의일정에는全대통령예방 외무장관과의 회담외에 휴전선 방문도 포함되어있다.

색다른것이 있다면 한국경제계의 중요인사와 조찬을하며 한국경제현황을 청취하고 의견교환을 갖는다는점이다.

경제학자이며 벡텔회사의 회장으로서 1981년초 한국을 방문한적이있는 슐츠장관은 이번 아시아방문을 위해 각지역전문가들을 초빙해 사전 브리핑을 들었을만큼 미리 공부를했다.

27일 柳炳賢 주미대사와의 訪韓에앞선 요담에서도 깊이있는 부문에 의견을 제시할수 있을만큼 한국문제를 연구했으며 이번 방한중 자기가 알고 싶은것은 『어떻게 한국이 급성장할수 있었나』하는 점이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취임후 첫해외방문으로 유럽과브레즈네프조문사절 자격으로 소련을 방문한데 이어 중공및 일본과 한국 등 아시아국가를 방문한다는점이 슐츠아시아순방의 의의를 잘설명해주고있다.

【워싱턴=李文熙특파원】

◇柳炳賢대사와 슐츠 美국무장관과 만나고있다

柳炳賢駐美대사가 27일 美국무성을 방문, 조지·슐츠국무장관과 만나고있다 【워싱턴22日UPI電送=聯合】

技術導入 전면自由化

科技處의 올해사업 靑寫眞

金融지원 1,345億으로 증액

高級인력 養成도 대폭強化

을 처번째로 가진 기술진흥확대회의는 선진조국창조를 기술혁신을 통해 이룩한다는 기술우위정책을 재다짐했다.

과학과 기술의 혁신은 한나라와 기업의번영은물론 생존권마저 결정짓는 주요인으로까지 평가되고 있다. 세계가 지금 치열한기술개발경쟁을 벌이고있는것도 이때문.

우리나라는 81년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5차5개년계획의 목표와 방향을설정한 뒤를이어 지난해技術主導의 새시대전개를선언한바있다.

이에따라 그동안 기술개발지원정책에 많은변혁이 따랐다.

기술개발준비금의 積立한도가 종전소득의 20%에서 30% 또는 수입금의 1.5%로 확대됐고 기술및 인력개발비의 10%를 稅額공제할수 있게 했는가하면 연구개발용機資材에 대한 특별 償却率을 50%에서 90%로 높였다. 또 기술개발선도물품의 內需기반을 확충키위해 특별소비세 잠정세율의 적용기간을 6년까지 연장하고 아울러 연구용품에 대한 특별소비세면제도 가능케 했다. 하지만 아직 이들 개선된 제도가 원활히 집행되기위해선 보완해야할 문제가 남아 있는것으로 되어있다. 따라서 올해 아직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강과 집행의 효율화에 힘쓸계획이다.

지난해에는 기술개발주식회사,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을 통해 모두 7백15억원의 기술개발부문에 대한 금융지원이 있었다. 올해 이를 1천3백45억원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구매제도를 지난해부터 기술개발비를 제품의 원가에 모두 계산, 산입토록했고 종래 가격위주의 최저입찰제를 품질과 성능·효율을 중시하는 입찰제로 바꿨다. 신기술제품개발자에 대한 입찰자격의 부여, 신기술 工法으로 原價를 계산했을때 50%의 보상제를 채택한다하면 主務部가 지정하는개발선정품에 대해선 隨意계약을 할수있도록 했다. 이같은 정부구매제도는 올부터 한층 확대 추진된다.

半導體, 컴퓨터, 정밀화학, 기계기술고도화, 에너지와 자원, 시스템산업등 6개분야의 국책연구개발사업에 지난해 1백97억원을 투입했다. 올해 유전공학을 추가, 7개분야에 3백57억원을투입한다.

기술도입인가를 지난해 主務部에 위탁처리토록 한데이어 절차를 간소화했고 이에 따르는 교섭비와 기밀비를 인정하고 이를 현실화했다. 올해 外資導入法을 개정해서 기술도입의 전면자유화를 特徵하고 기업의 자율적 판단과 책임을 존중하면서 선진기술을 보다 과감히 도입할수 있도록할계획이다.

기술개발의 주역이될 고급기술인력의 양성과 확보를위해 출연연구기관들을 통한 인재양성기능을 강화한다.

기업연구소는 80년대 46개에서 82년 85개소로, 종사연구원은 1천7백73명에서 3천3백47명으로 늘어났다. 중소기업의 공동애로기술타개를위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은 전혀없는상태에서 12개로, 연구개발투자는 5백93억원에서 1천2백7억원, 기술도입은 3백42건에서 4백29건으로 늘어났다.

정부는 이같은 바탕위에올해 ▲기술개발투자의 多元的확대 ▲기술의 消化및창출 ▲품질과 성능및 효율의 향상을 유도하는 시책을 적극펴나가기로했다.

한편 이번기술진흥확대회의에선 기술개발 行政體制의 효율화문제가 공식제기, 큰관심을 모았다.

과학기술처는 국무총리산하에 직속,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에관한 계획과 조정업무 기능만을하도록되어있다. 이때문에 아무리좋은 계획을 마련한다해도 이를 집행하는 部處가 받아들이지않으면 탁상공론으로 그칠 가능성이높다.

실제로 이같은일이 전에종종있었다. 조정기능이 주어져있지만 실제로 이를 행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운점이 많았다. 이때문에 많은뜻있는 과학기술계 사람들로부터 과학기술처가 제구실을하려면 도구(Tool)가 주어져야한다는 평을 받아왔다.

계획을 하면 이를 직접 실행에 옮겨 실행과정에서오는문제를 도출, 이를 피드백 할때 과학기술개발을 보다 실제적이면서 효율적으로 추진해나갈수 있다는데서다. 이같은 일은 특히 개발도상국가의 경우 한층 중요한일로 꼽혔다. 이번 기술개발행정체제의 효율화문제의 제기는 기술주도에 의한 경제사회 발전을 감안히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당연히 연구검토 되어야할 일로 보인다.

【李光榮기자】

◇우리나라는 半導體와 컴퓨터산업을 核心전략기술로 선정, 집중 개발한다.

사이공함락 8돌, 베트남의 오늘

戰爭은 이기고 富는 잃었다

90만명 船上탈출·42만명 美이주 希望

GNP1百60弗 세계 12개貧國의 하나

73년1월28일상오8시정각(한국시간) 파리에서 美협상대표 키신저와 越盟의 레둑·토간에 월남전종식을 위한 역사적인 평화협정이 조인된 후 이제 꼭10년이 흘렀다.

협정조인 1분후 포화는 다시 불을 뿜었고 월맹은 75년4월 드디어 사이공을 함락시켰다. 월맹은 군사적으로 일대 승리를 거두었다. 그러나 월남전이 끝난지 8년이 되어가고있는 오늘날 공산베트남은 총과 장갑차와 탱크를 앞세우고 여전히 전쟁을 계속하고 있다. 상대만 달라졌을 뿐이다.

베트남은 그들이 미국세력이라고 몰아세우는 세력들과 도처에서 전쟁을 치르고있다. 캄보디아에 진주하고 있는 3만명의 베트남군은 反프놈펜정권 게릴라들과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고 中共국경부근에선 라오스反政府 게릴라들과도 전쟁을 하고있다. 하노이는 시아누크公이 주도하는 反베트남연정세력을 미국과 중공의 「무선조종」에 의해 움직이는 용병이라고 비난하고있다.

프랑스에서 미국으로 상대를 바꾸어가며 지난36년 전쟁을 치러온 베트남은 군사력을 1백만대군이란 세계제4위권으로올려놨다. 이막강한 군사력은 이웃을 발산시키지않고는 자체폭발할 위험이있다.

국내적으로 베트남의 시련은 마찬가지다. 舊월남의 잔존 반공세력과 베트남고원지대의 反정부유격대들은 현베트남정권을 고통스럽게 만들고있다.

파리협정을 위반하고 얻은 월남전에서의 승리는 베트남에 엄청난댓가를 요구한 것이다.

국내적으로 베트남의 시련을 치르는동안 서방세계에서 흘러들어가던 富의통로는 월남전의 승리로 꽉 막혔고 자본주의세계에 향수를 갖고있는 사람들은 많은 다투어 공산베트남을 탈출했다. 90만명이상이 船上난민이되어 베트남을 떠났고 42만명이 유엔주선하에 미국에 이민을 하려고 시도하고있다. 베트남은 현재 세계의 12개 빈민국중하나이며 국민개인당 GNP가 1백60달러라고 IMF(국제통화기금)가 밝힐 정도로 국민생활은 극도로 처참하다.

전쟁과 기후불순으로 식량난까지 겹쳐 베트남은 많은 식량을 소련과 동구권국가로부터 들여와야한다. 한때 흥청대던 胡志明市(舊사이공)거리에는 배급표를 타기위해 법석을 피우고 있다.

오늘날 파리평화협상의 두 주역가운데 키신저는 역사선생님이 됐고 레·둑·토는 아직 하노이정권의 주요정책결정자로남아있다.

【崔海雲기자】

◇本國송환당하는 美系 亞洲어린이

美國系 아시아 어린이들의 본국 송환 계획에따라 베트남에 남아있던 가족들과 재회하게된 美國의 홍신회 플·보필 기자(안경쓴사람)가 베트남 출국에 앞서 탄손·누트공항에서 아동들에게 소형녹음기 조작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불룩씨의 오른쪽 옆이 그의 부인인 후인·킴·치女史.【胡志明市27日AP=聯合】

海外토픽

ET主役빌론 肺炎으로死亡

전세계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있는 영화 「E·T」(외계인)에서 조그만 체구의 외계인의 역할을 맡았던 마이클·패트릭·빌론이 27일 폐렴으로인한 합병증으로 35세란 젊은나이에사망.

「E·T」를 제작한 로스앤젤레스소재 유니버설 스튜디오의 대변인 프레드·스키드모어씨는 『빌론이영화의대부분의 장면에서 외계에서온 방문자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밝히면서 그가이날 오하이오주 영스타운의 성엘리자베드병원에서 숨을 거두었다고 전언.

「E·T」가 개봉된후 관객들 사이에는 누가 그역할을 맡았느냐에 대해 많은 궁금증이 있었는데 스키드모어씨는 빌론이 몇몇 장면만을 제외하고는 거의 혼자 역할을 수행했다고 밝혔다.【영스타운(美오하이오州)=AP】

印度 거북이보호

★매일 알수집 바다로보내

인도당국은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보호계획의 일환으로 매일 1백50여개의 바다거북알을수집, 부화시켜 새끼거북들을바다에 돌려보내고 있다고.

관리들에따르면 밤이면 바다거북들이 해안에올라와 알을낳지만 재칼·멧돼지및 어부들이 이를찾아내 먹어버리기때문에 당국이이를수집, 60일동안에걸쳐 부화시킨뒤 바다로 내보낸다는것.【뉴델리=AFP】

그때일 생각안나

★英女王침실 침범자 주장

지난해7월 버킹엄宮을 무단침입, 엘리자베드 영국여왕 침실에들어가 여왕에게 자신의 개인문제들에관해 이야기하다 체포됐던 마이클·페이건(32)은 25일 커다란 보안문제를 야기시켰던 이사건을 사실상 기억하지못한다고 주장.

그는 이날TV회견에서 『내가 실제로 여왕의 침실에 들어갔는지의 여부를 알지못한다』고말했다.【런던=로이터】

한국현대무용단

동남아지역·유럽을 거쳐 북미주로는 처음 오리엔탈 파레스에서 공연을 하게 되었읍니다.

바쁘신중에도 친지와 가족동반하셔서 회포를 푸시기 바랍니다.

인기자매

별자매

1월24일(월)부터

뉴 서울

공연

529 BLOOR ST. WEST
TORONTO, ONT
예약전화 533-1500

飮酒인구 갈수록 늘고있다

亞洲지역 맥주소비량 지난60년의 5배나

각국 酒稅인상도 효과없고 女性·10代까지 크게 증가

◇美경찰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소년을 체포하고 있다。미국의 각주에서는 청소년들의 음주운전사고가 부쩍늘자 최저음주연령을 높이려는 움직임이 일고있다。

세계의 여러나라들은 늘어나는 음주인구로 골머리를 앓고있다. 일부나라들은 술값인상을 통해 음주인구증가를 막으려하고 있지만 이것도 음주인구증가를 막는 효과적인 처방이 되지못하고 있다.

특히 이미 절제할수 없는 상태에 이른 알콜중독자의 격증과 미성년자의 음주행위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아시아지역에서는 음주인구가 크게 늘어나면서 주류생산은 해마다 증가일로를 치닫아왔다. 대중주이자 가장 인기품목인 맥주생산량은 지난60년보다 5배이상에 달했다. 이는 세계의 평균신장률보다 4배나 빠른속도이다.

필리핀의경우 지난해 맥주소비량은 20억병에 달한것으로 추산됐는데 국민1인당 연간 40병을 마신셈이다. 인도에서는 맥주공급이 수요를 따르지못해 맥주회사들은 시설확장에 혈안이 되어있다.

홍콩, 태국, 대만, 말레이지아, 일본등지에서도 음주인구의 증가추세는 마찬가지다.

아시아지역에 음주인구가 급증하고있는것은 산업사회의 급속한 변화에 그원인이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있다. 공업화·도시화과정에서 이지역의 국민들은 예전에 받지못한 많은 충격을 받게된다. 가치관에 혼란이 생기고 극복할수없는 정신적스트레스에서 벗어나지 못하게된다. 이런 산업사회의 충격을 잊자면 불가불 술잔을 자주 들지않을수 없다는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일본은 음주인구를 줄이는 방법으로 술값을 대폭올려 술꾼들을 놀라게했으나 지난해 알콜소비량은 1.6%증가를 기록했다. 酒稅를 2배나 대폭 올렸지만 술소비증가를 막는데 실패한 것이다. 이런일반적인 현상외에도 여자음주인구가 크게 늘어나고있는데 일본정부는 놀라움을 금치못하고 있다. 지난69년에 여자 음주인구는 6%에 그쳤으나 지난해에는 무려53%에 달했다는 것. 여자2명중 1명은 술을 마시는 셈이다.

미국에서는 10대음주인구의 증가를 우려하고있다. 최근 조사에의하면 미국고등학생들의60%는 최소한 한달에한번씩 알콜섭취를 하고있으며 28%는 1주일에 한번씩 술을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다.

26개州에서는 수많은 젊은이들의 건강을 지켜주기위해 최저 음주연령을 현행18~20세에서 20세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고려중에있으며 음주운전방지조사위원회는 각주가 21세를 음주연령으로할 것을 건의할 예정이다.

연방정부는 각주정부가 음주최저연령을 조정치않으면 하이웨이보조금을 삭감조치하겠다고 엄포를 놓고있다.

10대음주인구증가에 따라 고교생에의한 음주운전이 부쩍 증가한추세. 한통계조사에의하면 고교생4명중 1명이 음주운전을 한것으로 나타났다. 81년에 2만5천명의 미국인들이 음주운전사고로 죽었는데 35%가 16~24세사이의 젊은 청소년들이었다.

소련공산당기관지 프라우다는 소련이 술값을 인상하는방법으로 술소비를 억제하는데 실패, 음주가 가정의 불행을 초래하고 국민경제에 커다란 손실을 가져오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의 사회통계학자들은 소련이 세계최고의 상습음주인구를 갖고있다고 평한다. 프라우다紙는 음주는 1주일을 화요일에서 시작, 금요일에 끝나게 하고있을 정도로 국민들을 게을게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남편의 봉급이 술값으로 모두 털리는 것을 막기위해 봉급날이면 부인들이 봉급을 받아가기위해 남편을 기다리는 모습을 소련에서는 흔히 볼수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북부러시아지방에서 술을먹는 사람이 결혼식에 초대되고 있을 정도로 소련사회의 음주벽은 사회전체에 만연되어 이미 심각한 지경에 이른 것같다. 【朴炅鎬기자】

世界의 社会面

계속되는 不況·失業者급증타고

西獨에 히틀러 復古붐

최근상황이 30年代初와 비슷 나치執權 50돌맞아 향수느껴

30일은 반세기전 경제불황과 정치적불안정속을 헤매던 독일에 제3제국의 영광이라는 기치아래 나치당원들로 정권을 장악한 히틀러집권50주년이 되는날. 이날을 맞아 서독에서는 오래전부터 예술가·종교인·정치인들이 제각기 나름대로 기념행사를 준비하는등 히틀러 復古붐드가 한창인 반면 美·英·佛등戰勝연합국측의 언론은 이를 단순히 과거에대한 노스텔지어로 보아넘길수없는 전체주의의 부활이라고보고 경각심을 주기에 안간힘을 쏟고있다. 오늘의서독은 지난79년오일쇼크이후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2백만의실업자를내는등 불황과 젊은세대에만연하고있는냉소주의, 가출청소년들의 난동에 정부가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비난의소리가 커짐에따라 국민들사이에는 전체주의 무드가 높아가고 있다. 이는 1930년대초 히틀러가 정권을 잡기전의 바이마르공화국말기 상황과 아주 흡사하다.

◇1930년 나치당 창당기념일에 히틀러가 당원들의 사열을 받고있던 모습。

당시 계속된 불황과6백만의 실업자, 정치적혼란, 독일국민에게 좌절감을 안겨준 베르사유 조약등이 히틀러가 정권을 잡게한 근거들이라면 해 주었다는것이 사회학자들의 분석이다.

서독국민의 3분의2를 차지하고있는 전후세대들은 이제 히틀러의 범죄나 전쟁세대들의 행동에 대해 더이상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다는반응이다. 그러나 이들은 나치주의가 왜 어떻게 독일정치사에 출현하게 되었는가를 확실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정도 사실이다.

2차대전에 참전한 나이어린세대들도 나치시대를 일률적으로 죄악시하는 평가에는 갈등을 느끼고있다. 그들은 나치정권이 인종순화라는 이름으로 저지른 엄청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공포에 가까운 혐오감을 느끼고있지만 동시에 독일을 경제위기속에서 끌어내고 1차대전의 패배로 의기소침한 독일국민들을 굳게 단결시켜 전세계에 독일국민의 저력을 드러나게한 히틀러의 능력을 과소평가한데는 저항을 느끼고있다.

최근 수년동안 서독TV를 중심으로한 신문·잡지등 언론매체들은 일부에서 너무많다고 느껴질 정도로 나치시대를 다룬 전기물들을 쏟아냈다.

이중에서도 알베르트·히틀러의「그의 생애」등 3시간짜리 기록영화가 눈길을 끌었으며 유태인말살정책을 다룬TV시리즈「대학살」이 곧 다시상영될 예정이며 이밖에 나치시대를 미화한「스와스티카(나치표장)」로 뒤덮인 유럽」이란 필름이 관심의 대상이 됐다. 이같은 현상은 다시 말하면 독일인들이 더이상 나치시대를 독일역사에서 지워버려야 할 회한의 시대로 여기지 않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또 다수의 노년층은「미국이 베트남에서 한행동이나 프랑스가 알제리에서 저지른 만행에 비하면 나치는 그래도 그보다 나은 편」이라고 히틀러의전쟁범죄를 두둔하고 나서는경향조차 보이고 있다.

서독인들은 일부 사람들이나 외국에서 잊지 않고 나치의 과거를 파헤치는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최근의 예로는 작년 월드컵축구에서 프랑스선수에게 차징당한 서독골키퍼 슈마커가 차징한 선수를 주먹으로 쳐서 쓰러뜨리자 외국의 스포츠평론가가 나치의 야만성이 그라운드에서 재현됐다고 공개적으로 비난함으로써 즉각 반응을 나타냈다.

또 지난달 2차대전때 공중전에서 혁혁한 무공을세운 한스·울리히·루델의 장례식이 2천명의 조객이 모여든 가운데 성대히 베풀어졌는데 참석자들이 히틀러식 경례를 했다고해서 서독언론의 격렬한 공격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히틀러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도 서독에는 많다. 서베를린시가 주최하는「1933년-독재로 이르는 길」이라는 제목이 붙은 전시회가 좋은그한예로 히틀러가 정권을 잡기까지의 과정과 주요사건, 그가 독일과 세계에끼친 영향등을 사진과각종자료들을 한데모아 전시하고있다.

아직도 많은 서독인들의 가슴속에 제3제국시대의 영화에 대한 자부심이 남아있는한 과거의향수를 떨쳐 버릴수없다. 정국이 불안할수록 이런 향수는 더욱거센 히틀러붐을 몰아오는 촉매가 될 수도 있다. 【金一[illegible]기자】

紀綱확립위해 出勤앞당기고 退勤은늦춰

스페인의 아침은 公務員「不平만원」

◇사회당정부의 공무원기강쇄신책 발동으로 공무원들이 크게반발하고있는 스페인 공무원들은 일찍 출근해봐야 할일이없다고 오히려 투덜댄다。(사진은 수도 마드리드의 관청街)

스페인 관공서의 요즘아침은 공무원들의 불평으로 가득하다.

출근시간이 한시간 이상 빨라지면서 퇴근은 도리어 한시간이상 늦어지게된 때문이다. 하루 2시간씩 늘어지게즐기던 시에스타(낮잠휴식)의 전통에도 절제가 요구되고있다.

관료사회의 혁신을 선거공약의 하나로 내건 곤잘레스사회당정부가 드디어 그약속을 이행하고 나선것이다.

규정에보면 스페인 공무원들의 출근시간은 아침8시다. 그러나 규정된 시각을 훨씬넘겨 9시 또는 더늦게 출근해온것이 프랑코정권시절부터의 관행이었다. 대낮에는시에스타를실컷즐긴후 4시가 넘어서야 오후근무에 들어가며 그나마 퇴근시각인 6시 훨씬 전에 퇴근해왔다.

공무원들의 지각 출근과 방만한 집무태도는 사실은 박봉에 대한 일종의 보상책으로서 프랑코 정권시절부터 정당화돼왔었다.

이러한 속사정을 안고있는 오래된 타성을 하루아침에 뜯어 고치려 하니 불평의 소리가 높은것도 무리는 아니다.

정부방침에 화가난 사람들은 일찍출근한 소감을묻는 기자들을 향해『귀찮게 굴지말라』고쏘아붙이고는 벽에 걸려 있는 시계를 사무실 바닥에 내동댕이쳐 버리기도 했다.

많은 공무원들이 관료사회를 개혁해야한다는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거기에는 많은 문제와 잡음이 따를 것을 염려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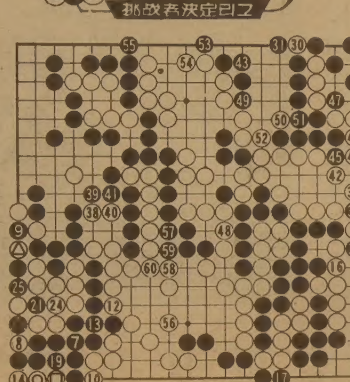
그러니까 박봉에대한 개선책이 우선돼야함을 암시하고있는셈이다. 사회당 정부의 개혁시책에 의문을 갖고있는 사람들도 공무원들을 출퇴근시간을 죈다는일이 꼭 公務의 효율성을높이는일이 되는것이냐고 의문을 제기한다.

그들은『공무원이 무슨 특권층가진 사람들은 아니지만 사회당정부는 마치 관공서를 개인기업체 다루듯이 한다』면서『이른아침에 일찍부터 오는 사람도 별로없고 우리도할일이 없기때문이라』며 투덜대고있다. 【마드리드=外信綜合】

名人戰 第14기 挑戰者決定리그

第8局 第11譜 207~260 (각5시간·[illegible])

白(6段)徐能旭〈1敗〉
黑(7段)徐奉洙〈1勝〉



좌하귀는 黑7로 잇고서 패싸움이다. 黑은 이렇게까지 안해도 승리가 확정적인데 수가 났는곳은 그대로 버려두지 않는것이 프로의 기질. 더구나 이곳은 원래 白의 유일한 약점이니 패를 지더라도 댓가는 충분히 얻을수 있다.

꽃놀이 기분인 黑에 반하여 白은 그야말로 필사적. 그리고 전체승부보다도 우선은 이곳 패자체를 이기는일에 총력을 기울였다.

白8선부터 쌍방이 한치씩 수를 죄어가는 패싸움은 보다시피 복잡하기 짝이 없다. 하지만 그과정은 필연적이라서 시간도 과히 들이지않고 패속진행이다.

黑 力不足 大敗

결국 白은 黑대마를 잡고 黑은 33, 35로 16까지의 白6점과 교환하는 것으로 패를 해소하고 말았다.

이과정에서 白60의 패쓰에 대해 응수를 안하고 좌하白을 잡아도 되는것을, 포식상태인 徐7단은 우하白을 잡고 약30집을 얻는일로 승부를 결정지었다.

이후는 盤面20집 이상의 차를 줄일길이없어서 그저 내친걸음에 두어보다가, 白60을 잇고서 돌을 거두었다.

패싸움의 과정을 음미하려면 한수한수 빠짐없이 찾아볼 필요가있다.

11…△이음。15…▲패따냄。18…8패따냄。20…◎치중。22…□。23…▲。26…8。27…14따냄。28…◎치중。29…▲。32…8。34…□黑전부를 따냄。37…◎이음。【一凡】

女記者 칼럼 〈132〉 張明秀

「한글신문」을 주장하는 어머니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에 사는「미세스·김」이란분이 우리나라의 신문제작에 대한 의견을 편지로 보내주셨다. 한글전용과 가로쓰기를 주장한 그의 의견은 미국에서 자녀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려고 애쓰는 한 어머니의 의견으로서 어떤 한국학자의 주장 못지않게 설득력이 있다.

『…외국에 나오면 모두 애국자가 된다고 하는데 저도 미국에 와서 살게된후 우리고유의 문화에대한 애착과 존경이 날로 짙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학교에 다니는 두아이에게 기회 있을때마다 조국에대한 사랑을 심어주려고 애쓰고, 무엇보다도 우리말과 글을 잊지 않도록 가르치고 있지요.

아이들은 토요일마다 한국학교에가서 한글을 배우고 있는데, 아직 어린 그들은 미국학교의 공부를 따라가는것만으로도 벅차서 토요일이되면 한국학교에 안가려고 떼를 부리곤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한글공부의 중요성을 알게되어 열심히 배우고 있답니다.

그러나 이렇게 힘들여서 우리말과 글을 배우는 아이들이 우리나라의 신문조차 제대로 읽을수 없다는걸 알았을때그 실망은 말할수없이 컸지요. 엄마인 나도 크게 마음이 아팠고, 한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신문이 안타깝게 느껴졌어요. 그옛날 세종대왕께서는 한문을 모르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들을위해 한글을 만드셨는데, 이 좋은 글을 두고도 어른세대의「시각적인 타성」때문에 한문을 섞어쓴다는것은 크게 잘못된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신문들도 하루빨리 한글전용의 가로쓰기 신문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이젠 한글세대가 이미 중년으로 접어들었고, 젊은이들중엔 대학을 나왔으면서도 한문을 못읽는 사람이 많은데, 무엇때문에 한문을 고집해야 할까요? 그전에 뉴욕에서 살땐 한글전용에 가로쓰기로된 한국일보 뉴욕판을 구독했었고, 이곳에서는 로스앤젤레스판을 구독하고 있는데 이곳은 한국과 좀더 가까와서인지 한자가 많이 섞여있어 유감스러워요.

한글을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읽을수 있는 신문, 외국에나가 살고있는 2세 3세들이 한글속에서 하나가 될수있는 신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글세대」의 한사람인 나자신은 기자생활 20여년동안 세로쓰기로 된 원고지에 글을 써왔으면서도 빨리 써야할때 온양의 원고가 있을땐 나도 모르게 원고지를 돌려놓고 가로쓰기로 써나갈만큼 가로쓰기가 더 능률적이다. 국민학교에서부터 대학까지 가로쓰기로 노트필기를 하고, 가로쓰기로 된 교과서를 읽던 옛습관이 그후 20여년의 세로쓰기훈련보다 훨씬 우세하기때문이다.

출판계에서는 벌써 오래전부터 젊은 독자층을 겨냥한 한글전용의 가로쓰기 책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신문들중엔 한 페이지 정도를 가로쓰기로 시험제작하고 있는곳이 있는데, 결국은「한글전용 가로쓰기 신문」으로 가지않을수 없을것이다.

한글을 배운 어린이들을 좀더 일찍신문애독자로 이끌기 위해서도 가로쓰기 한글전용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張吉山 〈1652〉

黃晳暎 作　崔然石 畵

第四部 逆謀 第一章 彌勒 (112)

계화가 마당을 몇 바퀴 돌고나서 대를 잡았고 신이 올랐는지 종이술 달린 신칼을 쳐들고 부들부들 떨기 시작하였다. 계화는 장쇠에게로 달려들어 전혀 다른 목소리로 부르짖는 것이었다.

『아이고 내 새끼야, 사고무친 혈혈단신으로 할미는 떠나고 너는 남으니, 이일을 어찌할까. 세상에 살아생전 목숨이 모질어서 네 걸립으로 할미가 연명하였으나, 그때는 그래도 함께 있어 좋았구나. 이 할미가 북망에 갈 내 손주를 잊겠느냐. 너를 두고 못내 넘고 있으니 살아서도 황천을 못떠날란다. 내가 가고나면 잔가는 누가 들여 주겠느냐』

어쩌구 하면서 계화는 그렁듯이 엮어 내리는데, 벌써부터 입을 비죽거리던 장쇠가 울음을 터뜨렸고 묘옥이도 옷고름으로 눈시울을 닦아냈다.

『우리 맘씨 고운 안성댁, 그저 어미같이 누이 같이 저것을 보살펴주고, 먹여주고 입혀 주어 저만치나 장성을 하고 이 못난것 저승길까지 닦아 보내주니 이런정성덕으로 큰복 받으리다. 그저 이 집 안팎으로 복이 가득차고 형통하고 평안하여 성귀께서 받들어주시리다』

계화는 묘옥에게 치하를 드리고나서 굿에 참례한 이들 가운데 적절히 골라내어 인사를 하고는 저승길 닦음을 계속 이어 나갔다.

『서낭당 뻐꾹새야 너는 어이 우느냐, 속빈 나무가 새잎나라고 우짖느냐, 새잎은 이우러지고 속잎이 날까, 서낭당 섯수를 베어 월후마루에 배 띄워 놓고, 임진강 여울 여울 띄워 놓고, 힘 들고 공 드신 망제가 타 건널까, 박산산에 흘러라 장단 여울을 굽어보니, 천리소 만리소 하니 장단 여울이 소위로다, 장단소 열세위 하니 한데로 올까, 오시는 길에 가얏고로 다리를 놓고, 가얏고 열두 줄인데 어느줄 받아 내려오나, 줄 아래 덩기덩 소리 노니라고, 천수경 법화경하니 시왕세계로 살으소사 연화대로 살으소산』

이어서 만신 계화는 사람의 넋을 잡아가는 저승 차사 마당인 사제삼성을 조렸다.

『밤이면는 산을 넘고 낮이면는 들을 타고, 십대왕에 분명 났소, 채판관에 소지 났소, 성명 삼자 적어들고 우수에다 철판 놓고, 어르고 쇠창 옷을 저처 매고, 오라 사슬 차고, 쇠패랭이 숙여 쓰고, 부릅뜨고, 삼각 수염 거스리고, 유자·빨을 뒤흔들고, 곰배팔을 잡아 들고, 전봉같은 팔목지에 무쇠같은 주먹이오, 흑각 발톱 대못 다리 뛰던지며, 활등같이 굽은 길을 설대 같이 다다라서, 닫은 대문 박차 여니, 수문장이 산란하구, 마루 대청 때구르니 성주 왕신 산란하구, 닫은 방을 박차 열구 방문성주 바로 잡고 성명 삼자 외쳐대니 망제님이 하는 말씀, 그뉘라서 날 찾나 친구 벗님 많다해도 날 찾일 이 전혀 없네, 일곱 사자 거동 보소, 어서 나오 바삐 나오, 채판관에 소지 났소, 저승도 이승 갈소 만조상을 뵈러가세, 실날 같은 목에다 가오라 사슬 걸어 놓고, 한번 잡아 나꿔채니 맑은 정신 간곳 없고, 두번 잡아 나꿔채니 열 손 열 발 맥이 없고, 세 번을 나꿔채니 혼비백산 간곳 없고, 정신 차려 들어보니 처자 권속 많다해도 동장들이 전혀 없네, 하릴없이 나설 적에 자던 방을 비워 놓고, 신사당에 하직하고 구사당에 재배하고, 저승길이 멀다해도 대문 밖이 저승일세, 문신은 문을 열고 길신은 길을 섞겨, 산신은 산을 섞겨, 어사지옥 대사지옥, 아미타불 열두 고개 넘어서서 극락세계』

여자의 마음

통과증

수은주가 영하13도를 가리켰다는 지난 20일, 타향살이 6년만에 고향을 찾아 廣州행 버스를 탔다. 이른아침이라 바람도 몹시 차가왔다.

두 정거장을 지났을때 할아버지 세분이 손을 흔들며 차를 세우려했다. 순간 안내양은 기사에게『저기통과증이있어요』하고말했다.

나는 무슨 뜻인지 몰라서 잠시 어안이 벙벙했었고, 차는 그대로 노인들을 태우지 않은채지나쳤다.

차가 계속 달리자 나는 안내양에게 통과증이 무어냐고 물었다. 대답인즉『경로우대증을 가진 노인』이란 뜻이라고 대답했다.

차비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경로우대증을 가진노인을 태우느라고 일부러차를 세울 필요가 없으니 그대로 통과하라는 뜻으로 안내양과 기사 사이에 하는 은어였던 것이다. 참·통으로 어이없는 일이었다.

노인을 우대하라고 만든경로우대증이 노인 푸대접증으로 둔갑을 하다니!

당연히 깍듯이 모셔야할노인을 그 추운날씨에 길에 세워두고떠나는 일부운수업자들의 양심을 묻고싶다.

물론 모든 안내양과기사가 그와같이 부도덕하고 몰염치하고 예절이 없으리라고는 믿지않는다. 하지만 우리도 언젠가는 모두 늙어야할 몸들인데, 우리가 후손에게「통과증」으로 몰려 푸대접받을날이오리라는 상상은 왜 못하는 것일까.

【신부틀·강원도 원주시명륜동 명륜 아파트5동5 08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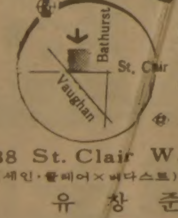
HOGAN GM
Chev Olds Limited
시보레·올스모빌

ㅁ최저 다운 페이먼트
ㅁ저렴한 가격 보장
ㅁ가장 좋은 조건으로 Finance 가능

○새차, 중고차, 트럭등 Leasing
○Trade-in

마이클 손
5000 Sheppard Ave. E., Scarborough, Ont. M1S 4L9 291-5054
(세파트×맥퀸)

한국인이 경영하는 홍콩 스타일 전문
Rose Garden Restaurant



■Free 주차장
■각종 술 full-licence 취득
■주문시 배달합니다.
■매일(년중무휴)
오전 11:30~새벽 1:00까지

538 St. Clair W. 656-0456
(세인·클레어×바다스트)
유 창 준 654-6609

오리엔탈·파레스

•일요일오후3시부터
•북경식요리
•소고기철판구이
•각종홍콩식요리

529 BLOOR ST. W. TOR.
533-3545·6

YAMAHA
건반악기 Porta Sound

Beginners sound great in minutes.
MOZART MUSIC CENTRE
MARKHAM PLACE　Don Mills Rd. & Steeles Ave　881-8230
HILLCREST MALL　9350 Yonge Street　883-9407
LUCAS YUN 윤 호 섭.

Grant Brown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잘 정비된 각종 USED CAR

이 한 구
☎: 247-7161

1575 WESTON RD.

정기총회공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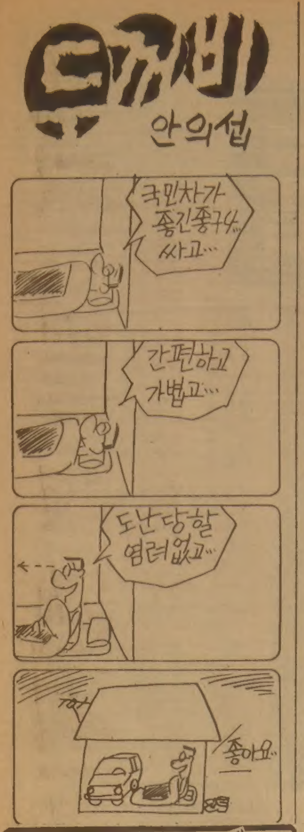
본 후원회에서는 정관 제4장 15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정기총회를 갖고저 하오니 여러분에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 아 래 —

안건 : ①수입및 지출. 결산보고
②1982년도 사업경과보고
③감사보고
④회장및 감사선출
⑤기타 토의

때 : 1983년2월5일(토) 오후1시
장소 : 벧엘교회 회의실

온타리오
한국맹인후원회
회장 원 종 필



세어린이 殺害犯은 10代

釜山 이웃少年검거 "용돈궁해서"

【釜山】부산影島區蓬萊洞세어린이 피살사건의 범인은 돈을 훔치러 들어갔던 이웃 10대소년이었다.

부산시경은 사건발생 5일만인 28일하오2시 시내影島區大橋洞5街65 신애외과에서 맹장수술을 받고 입원중인 朴모군(17·影島區蓬萊洞5街)을 이사건의 범인으로 검거, 범행일체를 자백받았다.

고 朴모군집에서 범행때입었던 피묻은 청색트레이닝 상하의 한벌과 범행에 사용했던 피묻은 장갑한켤레 운동화 마스크및 칼두자루를 증거물로 압수했다.

범인朴은 평소용돈이 궁해 강도를 계획하고있던중 사건당일인 지난23일하오 7시께 이웃에사는 辛東哈씨(39)가 경영하는 影島區蓬萊洞소재 N라면影島대리점에 들렀다가 辛씨부부가 이날밤 靑鶴洞으로 제사지내러 간다는 종업원들의 대화를 엿듣고이날밤 辛씨집에 침입,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진술했다.

朴은 이날하오9시께 자기집에서 아버지가 사용하던 마스크와 장갑을 준비한후 辛씨부부가 하오9시30분께 집을 나서는것을 확인, 10시20분께 잠겨져있지않은 대문을열고 들어갔다.

朴은 평소 안면이 있는 辛씨의 조카딸 영숙양(13·봉화국교6년) 등 어린이 3명이 방안에서 텔리비전을 보고있는것을 보고 『놀러왔다』고말하면서 자연스럽게 들어가 차남 용일군(6)을 변소안으로 유인, 용일군의 목을 졸라 실신시킨뒤 부엌에 있는 길이30㎝가량의 식칼로 난자해 숨지게했다는것.

朴은 끔직한 광경을 엿본 장남 원일군(8)과 로있는데 곳(금대란)는 朴의위협에 질려 대문쪽으로 달아나는 영숙양을 뒤따라가 연이어 살해했다.

朴은 다시 방으로 들어가 전축위에있던 손지갑속에서 현금1만7천원과 화장대위에 얹혀있던 돼지저금통에서 현금 1만5천원등 모두3만1천원을 털어 장롱속을뒤졌으나 금품이없자 방안에있던 옷가지로 자신의 피묻은발자국을 모두지운뒤 달아났다는 것이다.

한편범인이 이웃에서는 朴군이란 사실을 뉴스를통해처음들은 辛씨의처 송옥순여인(32)은 『세상에 이럴수가 있느냐』면서 실신했다.

이번수사를 맡았던 기형수사본부장(시경부국장)은 지난해 4월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때 수사본부장을 맡아 사건을 신속히 해결한 베터랑수사관. 부산시경은 이번 사건을 해결한데 공이큰부산影島경찰서 權昌奎 경위(48)등 5명을치안본부에 1계급특진상신키로했다.

도주 뒤 범행후 現場으로가 病院移送 거들어줘

朴은 범행을 한 뒤 밤 11시10분께 사건현장에서 20m정도 떨어진 자기집으로돌아와 피묻은 흰색 면장갑은 집뒤 폐품처리장에, 마스크는 옥상으로 올라가 골목건너편 쪽으로 던져버렸다.

朴은 엄마뒤 살해된 어린이들의 부모가 집에들어와사건현장을 보고 『도둑이야, 불이야』라고 고함지르는 소리를 듣고 친척과함께 사건현장으로가 죽은 아이들을병원으로 옮기는것을 도와주는 대담성까지 보이기도 했다.

朴은 다음날인 24일 어머니 李모씨에게 운동복에묻은 피가 싸움을 말리다 묻은 것이라며 세탁해달라고 건네주고 이틀동안 평소와다름없이 생활하다 26일하오 5시께 갑자기 복통을 일으켜 어머니와함께 影島區大橋洞소재신애외과에서 맹장염수술을 받고 입원중 27일밤 형사대에 검거됐다. 【鄭】

합승行爲등 10일간 免許정지

치안본부는 28일 택시의합승행위와 부당요금 징수행위에 대해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물린뒤에 10일간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내리도록 전국경찰에 지시했다.

치안본부는 지금까지 합승과 부당요금징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지않았고 범칙금 3만원과 소속회사에 10만원의 과징금을 물려왔다.

이같은 행정처분은 오는2월10일부터 실시된다.

결혼예물보석및시계
미도파
다이아몬드, 반지
목거리, 팔지, 목거리
B536-1692
H245-3539

前대법원장 비서관 賂物사건관련 두 部長判事 辭意

"돈받은일없으나 道義的책임"

전대법원장 비서관 姜鍵用씨(56)의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 서울형사지법 朴俊庸부장판사(46)와 서울지법南部지원鄭明澤부장판사(41)등2명이 지난26일 각각俞泰興대법원장에게 사의를 표한것으로 알려졌다.

朴부장판사는 지난해8월 南部지원에서 22만달러 해외밀반출사건의 재판장으로있을때 姜비서관이 보석청탁과 함께 1천만원을받았던 동사건관련 李京子피고인(42·여·음식점 대원각주인)에 대해 보석을 허가하였다.

또 鄭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1일자로 서울형사지법으로 전보된 朴부장판사의 후임재판장으로 姜비서관이 보석청탁과 함께 2천만원을받은 李京子피고인의 사촌동생 李在完피고인(36)을 보석허가해주고 두피고인에 대해 각각집행유예를선고했었다.

두부장판사는 姜비서관에 대한 검찰수사과정에서 姜비서관으로부터 청탁을 받거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는것으로 밝혀졌으나 사회적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것으로 보인다.

同居여인 殺害혐의 拘束중 "증거불충분" 檢察서 석방

서울지검南部지청은 28일 동거하던 여인을 살해한혐의로 경찰에구속된 成모씨(33·운수업·서울麻浦區孔德2洞)를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석방했다.

成씨는 지난해 12월21일 동거중이던 李正任양(22)이 서울江西區新月2洞427의3 반도연립주택105호에서 TV안테나선으로 목이졸려 피살체로 발견된후 범인으로 잡혀 구속됐었다.

검찰은 이날▲범행을 인정할만한 직접증거가 없고▲시계를 사달라고해 다투다 목을졸라 살해했다는 동기부분이 미약하며▲成씨의 자백에 일관성이없는데다 경찰에서의 자백이 가혹에의한 거짓말이었다고 검찰에서 번복된점등을 들어 成씨를 석방하고 江西경찰에 원점수사를 지시한것이다.

9명 어제낮 歸國

몰다이브抑留후 석방船員

몰다이브에 억류됐다 석방된 思潮산업소속 王龍37호(4백톤급저인망어선)선원27명중 9명이 28일낮12시50분 KAL806편으로金浦공항에 도착, 귀국했다.(사진)

이들은 지난해12월3일 몰다이브경비정에의해 나포됐다가79일만에풀려난것이다.

이날 귀국한 갑판원趙哲濟씨(27)에 의하면 선원들은 지난1월2일 말레섬으로 옮겨 재판을받은후 각기다른섬으로 분산수용되었다가 지난20일 말레에서 가까운 섬에 억류되어있던 선원11명이 1차로 풀려나게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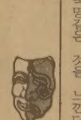
이들은 억류생활중 식사에 불편을 겪기는 했으나행동은 자유로와그동안섬주민들과도 사귈수있었다고말했다.

◇귀국선원명단 ▲金동선(20·실습항해사) ▲李순태(25·갑판원) ▲정학수(32·기관원) ▲朴永斗(32·기관원) ▲최청호(28·갑판원) ▲李숙이(18·기관원) ▲金종희(22·갑판원) ▲趙哲濟(27·갑판원) ▲車안수(21·기관원)

群山水協중매인 조합장 康玉均씨

"파리"노이로제

33년을 생선과… "人間파리도 문제"



群山수협중매인조합장 康玉均씨(62·사진)는 「파리」노이로제속에서 산다. 비릿비릿한 생선냄새와 파리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을지 모르지만 파리라면 지긋지긋하다.

33년을 생선속에 파묻혀살아 생선에 대해서는 道가 틀대로 터있지만 파리퇴치법은 끝내 익히지 못했다.

기차를 타도 파리들은 그많은 사람을 제쳐두고 자신에게만 달라붙는다. 은행이나 관공서에가도 마찬가지다. 연회라도 초대받으면 깨끗이 목욕을 하고 하루종일 바닷가를 멀리하고 참석하지만 용케도 생선장수를 알아보고 반가와한다. 그때마다 숙명같은 것을 느낀다고했다.

群山에는 1백여명의 생선중매인이 있지만 모두가 康씨를 「큰형님」으로 모신다. 나이나 경력으로도터주대감이다. 群山에서 어판되는 생선이 연간 3백억원어치에 이르지만 그중 10%를 康씨가 취급한다는 사실이 그의 막강한 실력을 뒷받침한다.

康씨는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잠을깨 3시간동안 전화와 씨름한다. 釜山, 束草, 木浦, 仁川의 어황을 알아본다음 소비지인 서울·大邱의 정보를 수집하고 어판장으로나간다. 8시께 고기를 사들여 소비지로 부친후 하오는 수금을 하느라 정신이 없다.

康씨는 신선도를 유지해야하는생선장수처럼 어려운 직업이 없다고생각한다. 한겨울에도 속이 타는때가 한두번이 아니다. 아침에 사들일때 싱싱하던 고기가 낮을해서 색깔이 싹변해 갈때는 딱질색이다.

『일천간장 다 녹을 때가 한두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생선장수의 ××는 개도 쳐다보지 않는다는 갯가의 속담도 있지만요』

그러나 康씨는 어부들이 잡아온 고기를 깨끗이 치워주는 것이 돈버는 기분못지않게 좋다. 그러나 사회에서 중매인을한꺼번에싸잡아 폭리나 취하는 사람으로 오해할때는 서글프다못해 욕지거리가 나갈판이란다. 물론 문제가 없는것은아니라는 걸 인정은한다. 생산정보와 소비정보를 제대로 연결시켜 주지못해 생선장수가 쓰러지고 소비자가 비싼 생선을 먹는다면 생선장수에 달라붙는 파리처럼 사회를 좀먹는 파리가 있기때문이라고 일침을 가한다. 무슨소린가. 【群山=金首宗기자】

藥禍우려…業權침해 是非잦아

◇왼쪽에 洋藥…오른쪽은 漢藥 한약취급약국이 늘어 전체약국의 39%에 이르고 있다. 사진은 한약취급약국의 내부로 왼쪽에서는 양약을, 오른쪽에서는 한약을 판매하고 있는 모습.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련없음】

漢藥취급 藥局늘어

―전체의 39%…4,700여곳서 500여種 조제

한약까지 취급하는 개업약사가 늘고있다. 한약재를 구하는 고객까지 유치하기위해 일부 약사들이 간단한 교육을 받은후 정제나 환으로만든 한약재를 양약과함께 다루고 있는것.

이같은현상은 약화사고의 우려가 없지않을뿐아니라 업권침해시비로 한의사, 한약업사들의 거센반발에 부닥치기도한다.

28일 현재 대한약사회 집계에따르면 전국의 개업약국 1만2천여군데중 39%에 달하는 4천7백여개소가 각종 한약을 취급하고있고 종전의 첩약형태에서 점차 과립 엑기스화제품을 조합, 투약하는 형태로 발전돼 5백여가지를 시판하고 있다는것.

이처럼양약국에서한약을취급판매할수 있는것은 현행약사법의 규정이 모호하기때문인데 약사법 21조에는 한약·양약을 망론하고 모든 「의약품」의 조제는 약사가 아니면 할수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부칙에서는 이와달리 모든 의약품조제가 약사의 손에서 이루어지는 완전한 의약분업이 이루어질때까지 의료현실을 감안, 잠정조치로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 의료인에게 자신이 직접진료한 환자에 한해 의약품을 조제할수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한약조제의 고유권한을 둘러싼 시비의 소지를 남겨놓은것.

약사들은 21조의 규정을내세워 한약조제가 약사들의고유권한이라고 주장하는반면 한약업계는 『漢方을 제대로 배우지못한 약사들이 어떻게 한약을조제하느냐』고반발해왔다.

한약조제를둘러싼 이같은 업권분쟁은 지난74년이후 표면화한것으로 그동안 간헐적으로 시비가 돼왔는데 올해에도 국회에 발의된 약사법개정안을 둘러싸고 또한차례 공방전이 벌어질 조짐을보이고있다.

이에대해 한약협회는 약국에서 팔리는 한약의 양이 적을뿐아니라 대형약국에서는 오히려 한약조제를 기피하고있다고 주장, 약국의 한약조제가 한약업계의 업권만을좀먹고 있다고 말하고있다.

그러나 보다 더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약사들이 섣불리 효능및 조제상황잘하기 그지없는 한약을 다룸으로써 약화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하지만 약사들은▲양약의 국가공정서인 대한약전(大韓藥典)에 여러가지 한약이 포함돼있고▲약대에서 생약학(生藥學)·본초학(本草學)등 전체교육시간의 20%를 한약에관해 배우고있으며▲개업약사들도 분회별로 한방강사를 초빙, 비정기적이긴 하지만 1백~2백명단위로 강좌를 여는한편 약사자신들이 나름대로 연구를계속하고있기 때문에 문제가없다고 말하고 있다.

한약조제를 둘러싼 약사와 한약업계의 다툼은 지난해가 장 절정을이뤄 대한약사회가 연초 한약조제지침서를제출, 보사부의 인정을받으면서 격렬해져 수세에몰린 한약업계가 성명서를내는등 반발하게 되자 엉뚱하게도 서울冠岳區의 약사들이 하루동안 문을 닫는 사태를 빚었었다.

이 문제는 결국 업권다툼 의약분업상의 문제점등이 뒤엉켜 단시일에 해결될수없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편 보사부 당무자는 『현행 약사법이 전면적으로 손질해야할 필요성이 있는게사실』이라고 밝히고 한약사신설여부도이와함께신중히거론돼야할 성질이라는 견해를보이고있는데 한약사도제를 신설할 경우 약사들의 반발이 거세질것은 물론 개정작업자체도 상반기중엔 어려워 한약조제를 둘러싼 분쟁은 계속 될수밖에 없을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任喆淳기자】

"盜電행위 적발되면 모두 刑事고발키로"

韓電, 強硬策강구

한국전력은 28일 최근전국 각지에서도전(盜電)행위가 점차늘고있다고밝히고 앞으로는 적발된대로 모두 형사고발키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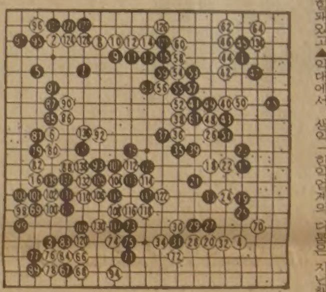
한전에따르면 작년한햇동안 적발된 도전건수는1만6천7백13건으로 전년도의 1만4천5백66건보다 14.7%나 늘어났고 추징금수납액도 81년의25억원보다 56%가 증가한 39억원에달했다.

한전은 지난81년 도전규모가 큰13건, 82년에 25건을 각각 고발했었으나 올해부터는 규모에 관계없이 전기를 무단사용하거나 계량기를 거치지않고 사용하는 도전및 계량기를 조작하는 행위등에 대해추징금부과와함께형사고발조치를취하기로했다는것.

한편 한전의 82년 송배전손실률은 6.6%로 미국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일본의5.[illegible] 대만의6.[illegible]에는 못미치고있다.

趙名人、제2局 不計敗

日棋聖戰 百66手로



◇제7기 棋聖戰 7번승부 제2국 【1~139·이하略】 ▲黑 도전자 趙治勳 名人(2패) ▲白棋聖 藤澤秀行 9단(2승) 〈黑5집반공제·제한시간 각9시간〉

【東京=宋孝彬특파원】趙治勳名人(26)은 26·27양일간 나가사끼市 淸風호텔에서 열린 제7기棋聖戰도전 7번기 제2국에서 후지사와(藤澤秀行·58)에게 1백66수만에 불계로 졌다.

제1국에서 진 趙名人은 집흑으로 분전했으나 초반 우변에서 벌어진 후지사와棋聖의 교묘한 捨石작전에 말려들어 리듬이깨진후 이를 극복하지못한채 지고말았다.

趙名人은 호방한 세력을바탕으로 만회하기위해 안간힘을다했으나 끝내 집부족을좁히는데 실패, 예상외로 2연패를했다. 제3국은 2월2、3일 富山에서 열린다.

獄살이 18개월 殺人혐의에 再抗訴審서 無罪

서울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朴萬浩부장판사)는 28일 동거여인을 살해, 암매장한혐의로 구속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10년이 선고됐다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鄭東一피고인(32·충남唐津郡石門面二峰里)에 대한 재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살인및 사체유기혐의에대해 무죄를선고, 鄭피고인을 구속된지 18개월만에 석방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동거여인의 시체를 발견한뒤 변사체신고를 하지않고 매장한 혐의에 대해서만 매장및 묘지등에관한 법률위반죄를적용, 벌금1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외에는 직접증거가 전혀없고 나머지 증거들도 간접적인 정황증거에 불과하다』고 살인부분에 대한 무죄이유를 밝혔다.

女大生등公演미끼 日本술집에보내려

國樂協간부令狀

【大邱】대구中部경찰서는28일 무용을 전공한 여대생및 여고생등 4명을 일본에 순회공연시켜준다고 속여 일본술집으로 넘기려했던 국악협회 大邱市지부 부지부장 朴福先씨(52·여·박소현 무용학원원장)를 국외이송유인 사기음화반포등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朴씨는 지난해2월초순 자신이 경영하고있는 대구中區南山洞70·박소현무용학원에서 고전무용을 전공한 대구모대학3년 李모양(25) 모실업전문대2년 成모양(20) 모여고3년 裵모양등 4명을 일본鈇子市濱町의 모술집에 무용수로 보내기위해 일본에문화교류로 한국고전 무용순회공연을 가는데 기간은 4개월로 1일 20분만 공연을하고 나머지시간에는 자유롭게 공부를 할수있으며 1개월에 50만원씩 월급을 받게된다고 속여 자기무용학원에 유인, 지난9월까지 일본순회공연 준비무용수를 시켜왔다는 것이다. 【鄭】

不動産 투기관련 業者3명에 有罪

서울형사지법 沈明洙판사는 28일 서울 江南지역 부동산투기사건과 관련, 구속기소된 서울江東區蠶室1洞 대우부동산 공동대표인 王寅錫(38) 申泰珍(29) 金潤吉(30)피고인등 3명에대해 사문서위조및 동행사죄를 적용, 이들 모두에게 각각 징역1년 집행유예2년 벌금 20만원씩을 선고했다.

5行뉴스

◆老木9천여그루 保護樹로 산림청은 28일 전국의 노·거목중 고사나 전설이 담긴 나무 9천5백16그루를보호수로 지정, 인근 자연보호회 책임아래 관리하도록 했다.

오영진작 맹진사댁 경사 연출: 이장성 기획: 임중남

기대하시라!

孟進士宅 慶事

1983년 3월19, 20일

2막5장

창단공연 출연자
이광민 이정원 손경일 신익균 김상욱 김현규 김혜원 남석란
서동헌 정광호 호세환 박성민 장기철 박지연 김초은 강충희

기술감독: 장기철 무대감독: 정광호 무대장치: 장연탁
의상: 김초은 분장: 이정원 음향: 김미영 소도구: 남석란

공연장소 CENTRAL TECH.
725 Bathurst st. Toronto

극단'얼' 창단공연 맹진사댁 경사

극단 얼
150 Madison Avenue, Toronto, Ontario Canada
m5r 2s5 (416) 960-0074

蹴球 감독(國家대표) 趙潤玉씨

理事會선임 LA올림픽·86아시안게임 대처

대한축구협회는 28일 하오 신집행부 구성이후 첫 이사회를열고 84년 LA올림픽과 86년 아시안게임등에 대비한 한국대표팀 새감독에 趙潤玉씨(42·通津綜高 코치)를 선임했다。

과거 한국대표팀FW로 이름을떨쳤던 趙씨는 현역은퇴후 浦鐵팀 코치로 후진을 양성했으며 77년에는 西獨코칭스쿨에서 체계적인 지도자훈련을 쌓은 중견 축구인이다。趙코치는 지난해 3월 金浦에있는 通津綜高코치로 부임했다。

축구협회 崔淳永회장은 신임 趙감독과 협의, 조만간 한국대표선수 선발문제를 매듭지을 것으로 알려졌다。

◇趙潤玉감독

한국、30일 싱가포르와 對戰
태국 청소년蹴球 日程 변경

한국청소년축구대표팀이참가한 제1회 태국국제청소년축구대회경기 일정이 현지사정에 따라 바뀌었다고 한국선수단이 28일 축구협회에 알려왔다。

한국팀은 당초 28일밤 헝가리팀과 첫대전을 치를예정이었다。

예선B조의 한국은 재조정된 대진에 따라 30일 싱가포르와 첫경기를 벌이며 2월1일에 폴란드、3일 노만、5일 태국B、6일 헝가리와 각각 대결한다。

한국 토지개발공사 여자弓道팀 창단식

한국 토지개발공사 여자궁도팀이 28일상오 창단식을갖고 출범했다。

金麗林단장、延康欽감독、朴歡來코치가 이끄는 토지개발공사팀은 전 한국대표선수인 黃淑珠를비롯、徐炫珠、韓銀京 池仁淑등 4선수로출범했다。

김빠진 冬季體典 폐막

기록凶作… 2冠王12명 탄생

제64회 전국체육대회 동계빙상대회가 한국신기록 1、대회기록 23개를 내고 28일 막을 내렸다。

이번동계 빙상대회는 기록면에서 노장 李永河의 한국신기록(남일반 1천m)1개로 겨우 체면을 유지했을뿐 수준낮은 대회신기록을 量産했다。

泰陵스케이트장에서 벌어진 28일 스피드경기에서는 대회신기록만 5개를 추가했으며 東大門실내링크에서 열린 아이스하키에서는 작년대회우승팀 高麗大를비롯、景城高、캐나다 동포팀인 花郞이 각각 승리、모두2連覇를 달성했다。

한편 東大門 실내링크에서 거행된 폐회식에서 鄭周永대한체육회장은 선수들의 끊임없는 정진을 당부했다。

스피드

대회마지막날 여고 1천5백m와 남고1만m에서 각1개、남국 1천5백m에서 3개의 대회신이 추가됐다。

羅潤洙(단국대)는 이날 남대 1천5백m서 호조를보였으나 마지막 3백여m를남기고 넘어져 기록경신에실패했다。

여고 1천5백m에서는 李京子(일동종고)가 2분20초46으로 종전대회기록을 3초26단축하고 우승했으며 남국 1천5백m에서는 전날3천m서도 우승했던 金鍾吾(리라)와 曺承鉉(구정)李仁勳(월계)이 1~3위를 휩쓸고 대회신을 세웠다。

이대회에서는 李永河(대우)裵基兌(서울고)崔宰榮(리라국)金鍾吾(〃)林賢淑(동국대)李垠宙(춘천고·중)李聖愛(외환은)李蓮珠(대부국)朴喜美(의정부여중)(유봉여고)張銀京(〃여중)金成晩(의정부중)李京子(일동종고)등 12명(남5·여7)이 2관왕이 됐다。

◇최종일기록(각종목 1위)

▲남대1천5백m=崔善太(한국체대) 2분07초90 ▲동여대부=金恩喜(한국체대) 2분25초63 ▲동남고부=裵基兌(서울고) 2분07초19 ▲동여고부=李京子(일동종고) 2분20초46(대회신·종전2분23초72) ▲동남중부=金東建(대구동중) 2분20초22 ▲동여중부=張銀京(유봉여중) 2분30초66 ▲동남일반부=鄭哲昊(맨드라미) 2분22초09 ▲동여일반부=金孝餠(경북) 3분13초99 ▲동남국부=①金鍾吾(리라) 2분23초70 ②曹承鉉(구정) 2분24초45 ③李仁勳(월계) 2분28초56 (이상 대회신·종전2분31초50) ▲동여국부=①李炫廷(월계) 2분43초84 ▲남대1만m=全明圭(한국체대) 16분40초14 ▲동남고=①金寬奎(서울체고) 16분13초40(대회신·종전 16분15초1)

피겨

피겨는 규정종목에 이어 28일 자유종목을 완료、林惠慶(한국체대)이 160·8점(석차2)으로 여대A조 1위를 차지했다。

◇종합성적(석차)

▲여대A조=①林惠慶(한국체대)160·8점(2·0) ▲동B조=①김지연(경희대)72·6점(2·0) ▲동C조=①김원희(이화여대)66·5점(1·6) ▲동D조=김은희(경북대)34·5점(1·6) ▲여고C조=①박상아(이화여대)90·4점(1·6) ▲여중C조=①송희승(진선여중)86·5점(1·6) ▲여국B조=①지현정(리라)85·1점(2·0) ▲남국C조=①강형호(리라)74·8점(1·6) ▲여국C조=①변선진(성신)93·8(1·6)

말썽많은 농구 드래프트

存續여부 신중하게 檢討

徐成煥신임會長

대한 농구협회 徐成煥신임회장은 28일 기자회견을갖고 86아시안게임과 88 올림픽에대비、농구중흥을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제하고 『기업이 새로운 상품을 꾸준히 개발해야 경쟁에서 살아남듯이 농구발전을위한 방안을 꾸준히개발하겠다』고 말했다。

徐회장은 말썽많은 드래프트에대해 해당연맹의 의견을 충분히들어 철폐여부를 결정하겠으며 농구붐 조성을위해 농구기금을 연차적으로 적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徐회장은 이밖에 신인 발굴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남녀 실업팀 창단을 적극지원하고 심판수당인상、심판전임제를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徐회장은 새집행부 명단을 발표했는데 상임진은오는2월2일 첫이사회서 결정된다。

◇집행부명단

▲회장=徐成煥 ▲부회장=申東寬 金相厦 尹德珠 邊勝睦 ▲이사=吳廣樹 韓相旭 金永基 尹錫午 文世榮 金洪培 方烈 李仁杓 朴晶淑 徐漢均 鄭奉燮 申東坡 趙勝延 朴韓 ▲감사=黃材九 崔海川

대한弓道협회 새會長 申東昱씨

대한궁도협회는 27일하오정기대의원총회를열고 朴定求회장 사퇴에따라 前회장 申東昱씨를 신임회장으로 선임하고 새집행부구성을 申회장에게 일임했다。

이날 열띤논의가 벌어졌던 국·양궁협회분리문제는 표결끝에 참가대의원 16명중찬성5、반대9、기권2표로부결됐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金東吉등 5명 金메달 挑戰

印尼아마복싱 오늘決勝… 3번우승 蘇와 치열한 覇權다툼

【자카르타AP合同=聯合】제6회 인도네시아대통령배쟁탈 국제아마복싱대회에 참가하고 있는 한국은 27일 속개된 준결승전에서 金光善、陳幸範、金東吉、河鍾湖、尹永北등5명의 선수가 승리를 거두고 결승전에 진출、우승을 바라보게 되었다。

◇尹永北

◇河鍾湖

◇金東吉

◇陳幸範

◇金光善

한국은 이날 6명의 선수가 준결승에나서 金東吉(라이트 웰터) 金光善(라이트플라이) 陳幸範(라이트) 河鍾湖(웰터) 尹永北(미들)등 5명은 이겼으나, 헤비급의 朴魯一은 美國선수에 KO로져 탈락했다。

뉴델리 아시안게임 金메달리스트인 강타자金東吉은 이날 인도네시아의 마나세·본사피아를 맞아 1회전에 두차례의 다운을 뺏는등 일방적인 경기를벌여 주심이 경기를 1회전에 중단시킴으로써 RSC승을 거두었다。

金光善은 위라트만(인도네시아)을 1회 RSC로 이겼고 陳幸範은 크로포트(미국)를、河鍾湖는 오헤·이다쓰(일본)를、尹永北은 파트리·샤페르(프랑스)를 각각 판정으로 제압했다。

한편 이대회에서 3번이나 우승한바 있는 蘇聯은 26일 2명의 선수가 결승에 진출한데 이어 27일에도 2명의 선수가 결승에 나가게 되었다。결승전은 29일 열린다。

◇준결승전적

▲라이트플라이
金光善 1회RSC 위라트만(인도네시아)
바루와엘(인도네시아) 3회RSC 수이사(인도네시아)

▲라이트
陳幸範 판정 크로포드(미국)
유리(소련) 판정 두체(이탈리아)

▲라이트웰터
金東吉 1회RSC 보나사피아(인도네시아)

▲웰터
河鍾湖 판정 오헤(일본)
리스보이(인도네시아) 판정 올에그(소련)

▲미들
尹永北 판정 샤페르(프랑스)
하우저(미국) 1회RSC 간디(이집트)

▲헤비
앤더슨 2회KO 朴魯一
본프레디(이탈리아) 판정 쇼네(프랑스)

高大·景城高 2連覇

加동포 花郞(중등)도 徽文꺾고

아이스하키

東大門 실내링크에서 벌어진 중학부 결승전에서 在캐나다동포팀(花郞)은 아이스하키 본고장에서 익힌 플레이를발휘、徽文中을 7—1로 대파하고 지난해에이어 2連覇했다。

花郞은 1、2차전서도 中東中과 景城中을 각각 8—1、6—1로 물리쳐 월등한 실력을 보였다。

이날 花郞은 1피리어드 시작 5분43초만에 프랭크·金이 박채홍의 패스를받아 왼쪽사이드에서숫、1점을 올리고 2피리어드들어 2분5초와 38초에 프랭크·金、홍창욱이 연속골을 터뜨려 일방적인게임을 펼쳤다。花郞은 퍽·컨트롤이나 패스워등 기본기가 앞섰고 공수연결도 매끄러웠다。

한편 고등부에서는 景城高가 CF金三德(3골) 卞善郁(2골)의 맹활약에 힘입어 LW李鍾斗가 분전한 徽文高를 9—4로눌러 우승했고、대학부에서 고려대가 光云大에 6—4로이겨 지난해에이어 연속우승을 차지했다。

◇결승전

▲중학부
화랑 7 (1—0, 4—0, 2—1) 1 휘문중학

▲고등부
경성고교 9 (4—1, 2—1, 3—2) 4 휘문고교

▲대학부
고려대학 6 (1—0, 3—1, 2—3) 4 광운대학

◇景城高와 徽文高간의 고등부 결승전。徽文高 GK 張漢善(22)이 골문을 비운채 앞으로 나와 퍽을 잡으려다 놓친사이 景城의 朴玄燮(5)과 卞善郁이 빈골문으로 대시、득점을 올리고 있다。景城이 9—4로 대승。

「겨울」이 없다

—프로야구 强訓현장을 가다

三星 라이온즈

83년들어서며 三星라이온즈는 어느팀보다 날카롭고 억센 이와 발톱을 갖추었다。국가대표 4번타자 張孝祚와 실업야구최우수투수 金始眞의 확보다。

82년 시즌내내 三星에는 정해진 타순(打順)이 없었다。1번에서 7번까지 고른 三星타선은 어느 곳에서라도 결정타 한방을 터뜨릴만 했지만 정작 필요한때엔 물에 빠진 솜방망이 격이었다。

『張孝祚에게 3번이나 4번을 맡기겠읍니다。그를중심으로 우리도 이제 확고한 상위타선을 구축할수 있게 됐읍니다』

徐永武감독은 張孝祚를 정점으로 成樂洙、吳大錫、鄭鉉發、張泰洙등을 앞뒤로 연결、연쇄폭발을 기대하고있다。

『프로야구단 창설소식에 설렘임과 두려움으로 잠을 못이루었읍니다。이제 정말 야구를 해야한다는 느낌이었지요』

張孝祚는 오랜 망설임끝에 프로로 발을 내디뎠다고 실토한다。그의 금년목표는 우선 팀의 우승。그다음 팀 여건이 허락한다면 최고타율에 도전하고 싶단다。각팀투수진의 강화로 張孝祚가 내다보는 타격왕기록은 3할5푼대。

張孝祚자신은 야수로서의 기량을 닦기위해、徐永武감독은 지명타자를 고루 쓰기위해 張孝祚에게 중견수 또는 우익수자리를 줄 예정이다。

張孝祚외에도 朴承昊、金瑾錫、丁讚鎬 黃炳一등 우수한 기능의 야수와 타자들이 三星·라이온즈의 레귤러자리를 노리고 있다。

『金瑾錫을 3루수로 돌려 기용해볼까 합니다。朴承昊도 타격을 살려 당장 레귤러로 뛸수있지요』

"솜방망이 불사르고 「연쇄爆發 打線」에 「消防투수」까지"

徐永武감독은 우수신진의 보강으로 또다른 효과를 노리고있다。선·후배로 얽매인 굴레를벗기고 선수들에게 프로다운 투쟁의식을 불어넣는것이다。慶北高·大邱商高·大建高의 연합팀으로 서열만을 좇던 나약한 정신을 선의의 경쟁을통해 쫓아내자는 것이다。

三星은 지난해 李善熙、黃圭奉、權永浩、成洛秀4투수의 어깨에만 매달려왔다。코리안·시리즈서 당한 역전패도 피로때문이었다。李善熙가 최종전서허용한 만루홈런의 십자가는 불운했던82년시즌 三星의 상징이었다。

三星은 83년을 위해 金始眞、梁日煥、朴東炯을 스카웃하고 宋鎭浩와 朴英辰을 다시 거둬들였다。지난해 시즌후 브레이브스와의 친선경기에서 마운드에 올랐던 宋鎭浩는 뜻밖에 좋은 피칭을 보여 금년시즌 선발투수로 발돋움하고있다。

金始眞、黃圭奉、두 右腕을 승리를 결정지어줄 마무리투수로 굳혀놓았다。成洛秀는 위기에 불을 끈 소방투수로、

『투수 9명 이름을 부르다보면 부자가 된듯 느긋한 느낌입니다』

투수부족에 혼이났던 徐永武감독은 李善熙、權永浩、두 노련한 왼손잡이를 선발로、宋鎭浩、朴東炯、梁日煥、朴英辰은 상태를 보아가며 유효적절히 게임에 투입되게 된다。

金始眞의 三星은게임의승·패를보다명확히 선택할수있게 됐다。강속구의 위력을살려 金이 결정적인 게임에 등판、적어도 15게임은 잡아주리라는게 徐감독의 기대이다。

『30승이면 우승하지 않을까요』

徐감독은 자신이 야전지휘를 맡을 83년 전기시즌에 우승할수있기를 바라고있다。후기시즌에는 日本프로에서 잔뼈가 굵은 李忠男조감독에게 작전권을 넘길예정이다。

고른전력에 이와 발톱을 날카롭게 가다듬은 三星·라이온즈。83년시즌 성패의 키는구단과코칭·스태프의 유기적인 결합에 달려있다。82년시즌 종합패권을 2게임차로 놓친 三星은 새구단이사、조감독、새 투수코치를 맞아들였다。이들이맡은 위치와 역할은 다소 불안정한 느낌이다。

三星이 83년시즌을 제패한다면 그전과는 선수들의 굳은 의지、코칭·스태프의 지혜로운 단합때문일 것이다。【方錫輔기자】

◇日本프로야구서도 정확한 작전으로 이름날렸던 李忠男조감독。三星우승의 전략을 세우기에 여념이 없다。

◇張孝祚

◇李善熙

◇黃圭奉

◇金始眞

◇金瑾錫

◇코칭·스태프

감독	63	徐永武	(49)
조감독	30	李忠男	(37)
코치	53	金昊中	(41)
	34	禹龍得	(33)

◇선수명단

위치	배번	이름	나이	키	左右	前소속
투수	26	李善熙	28	178	左	포철
〃	1	黃圭奉	29	180	右	한국화
〃	27	權永浩	28	179	左	〃
〃	11	朴英辰	25	180	右	〃 대
〃	17	宋鎭浩	26	177	〃	섬포철
〃	14	成洛秀	25	175	〃	〃
〃	9	梁日煥	22	177	〃	건국대
〃	29	金始眞	24	189	〃	경리단
〃	19	朴東炯	19	177	〃	상업은
포수	22	李萬洙	24	177	〃	한양대
〃	2	孫祥得	27	172	〃	포철
〃	8	孫相大	29	177	〃	롯데
내야	3	裵大雄	29	172	〃	포철
〃	16	吳大錫	23	178	〃	한양대
〃	35	金漢根	28	175	〃	롯데
〃	7	千普成	30	177	〃	롯데
〃	23	朴貞煥	26	179	〃	포철
〃	12	咸學洙	28	181	〃	〃
〃	15	金瑾錫	22	180	〃	고려대
〃	21	朴承昊	27	180	〃	성무
〃	6	丁讚鎬	26	177	〃	경리단
외야	4	張泰洙	26	174	〃	상업은
〃	20	鄭鉉發	30	174	〃	롯데
〃	44	朴燦	28	175	〃	농협
〃	33	許奎沃	27	175	左	롯데
〃	10	張孝祚	26	174	〃	경리단
〃	18	黃炳一	22	179	〃	건국대
〃	25	金東再	21	177	右	연세대
〃	28	洪勝奎	23	176	左	성대

"이젠 博士과정 하겠어요"

在佛3年半、미술석사된 鄭美朝

인터뷰

『밤은 낮에 비해 한상적이고 신비롭고 컬러풀해서 많은 얘길 담고있어요。제가 석사학위 논문을「밤」(La Nuit) 소재로 쓴것도 밤이 갖고있는 특성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프랑스국립장식미술학교(ENSAD)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일시귀국한 가수 鄭美朝씨의 말이다。

그의 학위논문은 16세기에서 20세기초의 라투르、드가、고흐、몽크、마그리트등 화가 6명이 밤을 소재로해서 그린 그림들의 색을 연구한 1백8페이지분량。

『언어가 아직 능숙하지못해 논문작성에 무척 애를 먹었어요。그러나 논문이 패스되고나니까 오히려 고생한때가 그리기까지해요』

그는 파리에 머무는 3년반동안서울에서와는달리 긴장되고 빡빡한 삶을 살아왔다고 밝히면서 지난 5월 엘(Elle)誌 추천으로 르살롱展에 참가、「파리의 축제」란 그의 그림이 1천프랑 상금의 장려상을받았을때가 가장 기뻤다고。

『중순께 파리로 돌아가게되면 4대학이나 7대학에 들어가 東西洋 비교미술사를 연구하는 박사과정에 들어가려고 해요。공부를 많이해서 뛰어난 학자가되겠다는 욕심보다는 자기충실을 기하기 위해섭니다』

파리에 처음가선는 컬러풀한 반·고흐에 빠져들었지만 요즘은「색감의 천재」라고 불릴만큼 깨끗하고、아름다운 색을 만들어냈던 칸딘스키에 심취해있다는 그는 몽마르트르 어덕에 올라가 그린「파리야경(夜景)」그림을 보고 프랑스 미술평론가 로제·브이요씨가 「신비스럽다」고 評을 해줘서 그경향을 받은것 같다고 설명한다。

『가능한한 많은 고생을 하면서 순간순간을 욕심껏 살아가고 싶어요。완전히 귀국하게되면 가수생활은 계속하지 않겠어요。앞으로 제 삶의 모든 것은 오로지 그림을 그리는일이니까요』

결혼은「안한다는것이 아니라「못하고 있다」고 고백하는 그는 중매좀 부탁한다고。【崔成子기자】

◇「밤」(La Nuit)이란 석사학위논문을 가슴에안고 그동안 고충을 말하는 가수鄭美朝씨。

감사의 말씀

오랜 투병생활끝에 부르심을 받아 지난 1월29일 하느님의 품으로 돌아간 고 강황규(그레고리오) 동우의 장례에는 공사간 바쁘심에도 많이 참례하여 주셨고, 궂은 날씨를 무릎쓰고 장지까지 왕림해 주신 뜨거운 우애에 깊이 머리 숙입니다.

또한 화환·금품등 물심양면의 고마우신 손길 더욱 감사합니다.

일일이 찾아뵈옴이 도리이오나 우선 지면을 빌어 인사를 대신합니다.

1983년 2월 1일

유족일동·동 우 회

한인신용조합에서 새로 취급하는

R.R.S.P.

- 정부가 인정한 저축제도이므로 세제상의 혜택이 있읍니다.
- Earned Income(총 받은 수입)의 20% 또는 $5,500까지 저축할 수 있읍니다.
- 82년도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선 금년 2월말까지 저축해야 합니다.
- 이자율은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높은 이자를 적용합니다.

CO-OPERATIVE TRUST COMPANY OF CANADA

Member Canad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토론토 한인신용조합

641A BLOOR ST. W. ☎ 533-9387, 9388

★카텐을 원하십니까?

안심하고 믿고 찾는 럭키 Drapery

◉품질 다양
◉저렴한 가격
◉성실한 써비스

4141 Dixie Rd.(딕시 × 버남돌프)
전화 : 625-0698 최 원 보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빅•세븐 선물쎈타

◉중국산•한약•직수입
◉인삼•녹용 :
◉각종 귀국용 선물용품등.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대표 : 김 영 철

소 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시설및수리

"Kim's Installation & Repair"
설계및 실내장식, 건물구조변경, 지하실 꾸밈,
Paint, 각종유리 일체를 취급, 상•하수도 욕탕 각종타일
시멘트공사, 전기시설및 수리(전기제품 포함)
전화 : 425-8585, 535-4441(R) Mr. Kim

"집수리•신전축•목수일"합니다. 빈가게및 건물 주로 변경, 지하실 전문, 진열장 카운터 제작, 스틸 씰링, 페인팅, 타일, 세멘트일등, 설계, 실내장식, 신축, 상담, 허가시공. ◉전화 : 669-5784(Mr. 심)

▲목공소(FINE WOOD WORK) : 캐쉬 카운터, 각종 진열장및 가정용 책장등 가구를 주문 제작합니다.
전화: 676-1173(B), 251-2966(R) 조덕근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KIM ELECTRIC LTD. I.B.E.W. UNION MEMBER
MET. LIC. E1018, 전기시설•보수•경보장치 설치•Fire Alarm
전화: 438-3795 김영호

KW Electrical Services Met. Lic. E-1267 Miss. Lic. 3312
◉주택, 상점, 공장의 전기시설, 보수, 증설 일체
전화: 791-1973 지경원

CUSTOM WORK.
수리-가게, 집, 캐비넷. License No. B-2532
전화: 653-3105 Charles

식 당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클링톤하우스 각종모임(동창회•계 등)을 위한 조용한 분위기 별실마련. 간단한 중국요리도 취급(저렴한 가격 봉사) 전화: 535-9541
693 Bloor St. W

호 심 (Korean & Japanese Restaurant)
1st Canadian Place Concourse Level in the Food Market
100 King St. at Bay(P.O.Box 329) Tel: 368-0686

Rose Garden(중국집)각종 파티, 회의실 마련.
홍콩식 중국요리전문, 각종술 취급.
538 St.Clair Ave. W.(Bathurst) 전화: 656-0456, 654-6609

서 울 집
고향의 맛, 한식•중국요리, 각종국수 전문
615 Bloor St. W. 전화 : 532-0602

그라나다(GRANADA)음식점
피로연•회갑•동창회•각종모임•계(예약환영)
920 Yonge St. 전화 : 923-3060

내고향통닭집
고향의 미각, 통닭•김밥•우동•곰탕•만두•빈대떡등…
658½ Bloor St. W. Tor. 전화 : 537-0432

KOTO 일본음식점 ◉사시미•생선초밥•덴뿌라 등…
영업시간: 수•목-5:30pm~11pm 금•토-5:30pm~12pm
5304 Yonge St.(at Finch) 전화: 221-1621 월•화는 휴업.

마쵸레스토랑(월-금: 4pm-1am, 일: 4pm-11pm)
각종 한식•중국식•양식 취급, 주류일체 취급.
4035 Gordon Baker Rd.(Victoria & Steeles-1 Block South) 498-1300

식 품 점

삼복식품
•불고기, 갈비, 밑반찬, 김치등 맛이 최고인 삼복식품!•
★일요일 정상 영업(오전 11시~오후 8시까지)함.
★교회, 동창회, 결혼, 회갑, 피로연등 단체구입손님에게 특별할인봉사.
★품질과 신용이 최고인 삼복식품을 많이 애용해 주세요.
전화 : 743-8270 2437 Finch Ave. W. Weston

제일식품
▲저렴한 가격 ▲품질보장
▲배달함 ▲파킹장준비
712 BLOOR ST. W.
전화 : 532-1054 오 석환

서 울 식 품(동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 291-8317

서울식품(서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김치전문(도매가격)
1391 Weston Rd. 전화: 243-9544

한인식품
▲각종 한국식품 취급. ▲달걀•감자등 도매, 배달.
15 West Dean Pk. Dr.(East Mall Plaza) 622-2643 손덕수

실내장식

Office•Store•Restaurant•Residence
Design, Permit and Construction
FINE DESIGNS 622-5328 조 덕남

경보 장치

경보장치.
가게, 주택을 위한 각종 경보장치•도난방지기등 설치.
전화: 924-7696 Mr. 정

액 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조 성 호

Kim's Art Gallery 액자, 동양가구, 유화, 동양화 전문.
1286 Weston Rd.(에그린톤 × 웨스톤)
전화 : (B)243-0233 (R)247-3226 김석환

SUNKIM INDUSTRY LTD. 액자공장-그림재료.
2446 Cawthra Rd. unit 4-Block 4 Miss. Ont.
전화 : (B)272-0068 김승수

파실 물건이 있으시거나 교환하시고 싶은 물건이 있으시면 저희 안내광고를 이용해 보세요.
그 효과에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악 기 점

피아노 수리•조율•재생•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665-8233(B)
주소 : 855 ALNESS ST. UNIT 13 이 상 철

와그너 피아노
(B) 445-1516, 449-8644
(R) 286-1548. 박 성희

양 장 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MIRAGE BOUTIQUE(구 코스모스숙녀복집)
각종 고급숙녀복 취급. 704 Bloor St.W. 전화: 530-1870
오전 11시~오후 6시30분. 금요일은 오후 8시30분까지.

에어콘 히팅 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 HOUR SERVICE-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494-0512(B) 493-9945(R) 김 봉 균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Richvale ◉Heating, Cooling & Electrical
◉24시간 Service.
전화 : 752-0404 Mr. 오

Enco Mechanical 냉동기•히팅(전기•개스) 수리•설비.
Lic. Mechanic. Engineering Technician
전화: 769-5956 김명근.

RASCO 냉동 -★에어콘, 히팅, 워킹쿨러, 후리저,
Washers, Dryers, Stoves등등 시설•판매수리.
전화: 439-0047 Mr. 최

여 행 사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김종조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366-0960 임 태 호

세 방 관 광 여 행 사
720 SPADINA AVE. SUIT. 104
전화 : 928-3335(B), 532-9581(R), 유승민
921-7486(R) 유문원

운동구점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건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단체 유니폼, 트로피, 기념타올, 각종골프채등 취급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이기훈

이삿짐센타

이사하실 분은 언제라도 연락주세요.
전화 : 533-9233 Mr. 유

운 전 학 교

아스트라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 741-6099(B) 743-3377 Mr. Eastman

Agincourt Driving School(Eastside of Metro Toronto)
18년간의 운전교육 경험으로 성실히 모심. 스카브로(동쪽지역)은 Ride 제공함. 전화 : 291-8304 (블라도)

UNITED DRIVING SCHOOL.
특별할인 수업료 $149. 온타리오 안전 수료증을 발부합니다.
•10 번 의 드라빙 수업 •25시간의 교실수업
•본 수업을 끝낸 후 41%까지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수 있음.
•인컴텍스에서 면제할수 있음. 2300 Lawrence Ave. E. #14
★이 광고를 가져오시면 $20할인 해 드림. 시간당 12불로 특별운전 교습을 할 수 있음. Tel : 431-2596

A-1 Safety Driving School
자상하게 성의껏 잘지도함. 어디든 가서 Pick-Up함.
1레슨: $11. Road 테스트: $22. 전화 : 763-3593, 766-0860

인 벤 토 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STORE인수, 인계 INVENTORY
2)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전화 : (B) Anytime 536-6250 호 세 환

인 쇄

비둘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789-7351, 789-7352 대표 : 이 인 용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ADVENT 프린팅
6028 Yonge St. (영×휜치 북쪽)
전화 : B)221-3737, R)224-1133 임 운 철

자동차매매

GRANT BROWN G.M. (폰티악, 뷰익, 캐딜락)
1575 Weston Rd.
전화 : 247 - 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G.M.(폰티악•뷰익)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문

North York Chev-Olds Ltd.
○. 시보레, 올스모빌, Van및 각종 중고차(lease도 취급)
○. 가장 오랜 경험의 쎄일즈맨
○. 철저한 After-Service
7200 Yonge St. (영 × 스틸)
전화 : (B) 881-5000 (R) 221-2979 김 병권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길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김 용 환
라지에타 -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전화 : 245-1978(B), 248-6032(R)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537-5830

E & J 오토바디 숍.(B)766-3122 (R)439-6548
-토잉무료. -각종 보험일 처리. -철저한 신용.
104 Osler St.(Dupont×Dundas. W.) 이영두

자동차 수리 (파타임)
전기 일체에 관한 일
전화 : 291-4547 Mr. 윤

장 의 사

Toronto Memorial Funeral Home
721 Bloor St. W.(at 크리스티 써브웨이)
전화 : 536-6250 호세환, 530-1222 Mr. 왕

파실 물건이 있으시거나 교환하시고 싶은 물건이 있으시면 저희 안내광고를 이용해 보세요.
그 효과에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카펫 • 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 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 W. 20%~30% OFF
(B)252-4857, (R)252-6602 Mr. 유(분납 가능)

카페트 크리닝 : 카페트•소파•쉐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439-6277 Mr.박

Stewarts 카페엣 Land(70%까지 세일중)
무료설치, 스폰지 무료, 무료배달.
1200 Kennedy Rd. Scarboro(Tel. 757-2811)

태 권 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하 드 웨 어

Bloor & Bathurst Hardware
전화 : 531-6183 변 의섭

한 방 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416)537-6685 8am~6: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Yonge St.에서 Bayview 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하트빈한약상사
20년동안 침구를 연구함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20년간 하트빈한의대학교수
중국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정확한 진단과 처방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 옆)
전화 : (B)536-6854, (R)921-3382 서 춘 봉

보광한약방 (송계 김남집)
임상경력 30여년, 사암오행 침구전공
특히 만성질환, 상담환영, 보약 첩약 특선정제
627 Bloor St. W. Ste #202(외환은행 2층 한국관앞)
전화 B)(416)588-1984 (10:00a.m.-8:00p.m.)
92 Brantwood Dr. Scar. (R)(416)439-6717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진품 웅담•녹용•인삼•우황•사향• 산삼취급
전화 : (B)530-0522, 530-4900, 968-3586(R)

김명종한약방
2433 Finch Ave. W. #411
전화 : 745-2058

동방체질개선연구원 전화: 745-8899(우 봉)
◉한약과 침•뜸•특수부항요법•지압•단식요법. ◉고혈압•신경통•요통•두통•심신불안과 불면증 ◉2433 Finch W. #516

회계사무소

K.G.S.Tax Accounting
과거 수년간 카나다정부 세무감사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갖고 회계업무와 세무감사에 대한 업무를 봐드립니다.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Mississ.
◉전화 : 273-7300 공인회계사 이명세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Tax Return, Tax Planning
4750 Jane St. Suite.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 회계사무소
627 Bloor St. W. #302
외환은행 블루아지점 3층 534-3760

차상범회계사무소(Cha's Accounting Service)
3305 Lakeshore Blvd. W. Toronto, Ont. M8W 1M9
전화 : (B)(416)255-8301, 259-5822 (R)(519)653-5329

공인회계사 이경복
CERTIFIED GENERAL ACCOUNTANT
3416 Dundas St. W. #206, Tor. 전화 : 766-5639

이명윤회계사무소 - 스카보로
◉1974년도 욕대학 경제과 전공 ◉1976년도 욕대학 경영관리학 회계학전공 ◉현 캐나다최대의 컴퓨터회사의 어카운터 메니져 ◉소규모사업체 회계사무 6년경험
44 Gil Roy Dr. Scar. Ont. M1P 1J9
전화 : 752-9332(R) (오후 5시30분이후)

광고문의 533-2361

최대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캐나다 생활의 동반자, 정상의 신문, 한국일보 !

아세아 한약방

◉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각종보약, 각종병약
◉ 물리치료(식이요법, 단식요법, 무료상담)
◉ 무병장수의 비법은 한약과 건강식품으로
◉ 영업시간 : 월-토: 오전 10시 - 오후 8시

645 Bloor St. W. 530-4900(B)
전화 : 968-3586(R), 530-0522(B).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BLACK SEA Fish Wholesale Ltd.
각종 생선 소·도매함.

〈영업시간〉
월 · 토: 8:00 a.m-5:00 p.m
화·수·목: 오전8시-오후6시
금 : 오전8시-오후7시
16 Osler St.
전화 762-7255,7256,2700

구 인

햄버거숍에서 파트타임 오전중에 일하실분.
오전 11시~오후 3시
전화 : 447-1460 (오후 3시 이후)

저녁때 일할 파트타임 Hairstylist 구함.
Knob Hill Farms, 222 Lansdowne Ave.
전화 : 531-1011 Manager

도넛숍 카운터 헬퍼 구함.
(1)밤12시~아침8시 (2)주말 아침8시~오후4시
전화: (B)690-3920, (R)491-8734 Mr. 김

용모 단정하고 영어에 불편이 없으신분 구함.
Eaton Centre안(직접 내방원함) 1층 분수대옆
SWENSEN'S ICE CREAM

영어할수 있는 풀타임 여자 캐쉬어 구함.
주5일. 교통 편한곳임. 다운타운 지역
전화: 699-3953

한국요리사. 입주하셔서 가정돌보실 분.
내방 요망합니다. 538 St.Clair Ave. W.
전화 : 654-6609 Mr. 유

밴운전 할수있고 사닥다리 올라갈수 있는 미혼남자.
그림 그릴수 있으면 좋음. 1일 8시간 근무. 127 Manville Rd.
전화 : B)755-9087, R)755-5304 Mr. Lee Scarboro, Unit 9 rear.

입주할 분 구함.
전화 : 266-6355

5 일에 $ 15로
원하시는 것을
찾으실 수 있읍니다.

광고국직통전화 :
☎ : 533-2361

댄 스

부루스, 지루박, 도롯도, 탱고, 월츠, 폴카, 디스코, 차차···. (출장지도및 주말지도도 함.)
◉개인·소구룹·단체. 문의: 742-4208 김유수

구 혼

결혼상담, 전자침(한국기원내)
653A BLOOR ST. W. TORONTO.(18세부터 60세 사이)
전화 : 533-0168 매일1시-10시 Mr. 최·김

남자친구를 찾고 있읍니까?
24살의 남자가 18세~30세 여성을 찾고 있읍니다.
전화: 532-3465 Marshall

한국기관·해외지사

총영사관	598-4608
무역진흥공사	977-8784
외환은행	364-2890
외환은행 Bloor지점	533-8593
한일은행	865-0456
조흥은행	363-3448
KAL	862-8250
금호실업	224-2491

교 민 단 체

한인회	755-9288
노년회	755-8079
실업인협회	533-7923
Y.M.C.A.	536-1166
코리아타운번영회	532-2727
동우회	261-2917
호남향우회	651-8835
캐나다체육회	248-8846
한인신용조합	533-9387
천주교신용조합	363-0097
한인태권도협회	630-3095
상공인협회	444-3716
이민사자료연구실(한국일보사내)	533-2361
'88 올림픽후원회	622-3674
승공문화협회	444-3658
온타리오한인맹인후원회	593-8943

개 인 지 도

피아노 교습생 모집
성심껏 지도. 초보자 환영. DIXON & KIPLING
전화: 243-7752 749-1316(낮·Answering Service) Jennifer Hong.

피아노 레슨
Royal Conservatory 시험준비. All Level.
전화 : 221-2556 Mrs. 리(Finch & Yonge 근처)

치과기공 개인지도(Crown & Bridge)
짧은기간내 적은 경비로 많은 소득을 얻는 기술.
(낮)636-1435, (밤)635-7116 박창우

광고문의 533-2361

매 매

타사업 운영으로 인해 아동복 전문점 급매.
좋은 조건으로 양도하겠음. 꼭 흥미있는 분만 연락요망.
전화 : 530-0023

Hardware 비지네스 $25,000
좋은위치, 넓은 파킹장, 렌트및 장비양호
전화: 883-1721 Harry Pridham

버라이어티 스토아(Tuck Shop) 매매
아스킹: $20,000+스탁 주매상: $2,500~$3,000
전화: 1-561-1911 Mr. 정(저녁7시 이후)

◉연평균 주매상 약4천불의 버라이어티 스토아
렌트: $450, 4년+5년 이층아파트 입주 가능
권리금: 3만5천.(전화 225-1204)

Soft Ice Cream 머신 일절 매매.
★산지 2년 됐음.
전화: 961-3517

매매 (Tuck Shop)
100% Cash Deal
전화 : 242-2630 Mr. Park(밤 10시30분 이후)

가게 매매 또는 매니저 - 해밀톤
주매상: $5,000, 렌트: $500. 리스: 5년+5년
전화 : 498-5242(토론토)

에드몬톤에 있는 주유소 급매.
정비공장 가스스테이숀, 자동차 Part Shop, 토잉설비
Asking: $125,000(설비+Part+토잉트럭 완전포함)
연 Net Income: 7만불
연락처: 1-403-475-9613, 1-403-475-1631 Mr. 박
(Collect Call도 무방함)

COIN LAUNDRY
28 Washers, 2 Heavy Duty Washers, 11 Dryers,
1 Pop Vending Machine, 1 Soap Machine.
Lease august 31, 1988, extention possible.
Yearly net income $24,000(Minimum)
Asking price $50,000(one price)
Address: 3412 Dundas St. W. Tor.(in Plaza)
Telephone: 762-1264

(1)Drive in Restaurant 매매(•4년된 독립빌딩과 비즈네스)
◉$75,000 down, $100,000 주인이 모게지 잡음.
◉좌석44, 주류허가, 45대이상의 주차장. ◉대지 1에이커는 16년간 리스가 있고, 건물확장·신축·비즈네스 전환도 가능함. (2)버라이어티 년평균 주매상: $5,500 렌트: $800
Royal Trust 곽석용(전화: 752-3111)

다이아몬드·반지 4부 VS. H. Color
Appraised $1,900 Sale가격: $950 ◉Band(가락지)와 한쌍
전화: 767-1702 박(오후6시 이후)

Health & Bulk Food 가게매매(Dry Fruit, Nuts, Tea, Coffee, Candy, Chocolet) ★짧은시간·좋은이익.
전화: 783-6464

"가 구"
직접 공장에서 만들어 파는 까닭에 여러모로 고객에게 도움을 드립니다.
1)3 Pcs. Wall Unit. $199
2)7개의 설합달린 책상 $65
3)거울달린 화장대 $79
4)Bed room set(9 Pcs) with mattress $399
5)5 pcs. Kitchen set(식탁 + 4개의 의자) $89
6)쇼파 4pcs. set $399 etc. REMA FURNITURE
937 Queen St. W. 전화 : 364-0984

Tuck Shop 급매. 해밀턴 지역. ◉300세대 성인아파트. 인근 타운하우스. ◉드라이크리닝···사진취급 ◉안전사업. 입주가능. 아스킹: $19,000+스탁 1-561-1911 Mrs. 정(저녁6시

◉아이스크림 커피숍: 바쁜 Indoor Mall. 일요일 닫음. 리스 9년. 권리금: 7만 9천 ◉가게와 건물: 1)토론토 서쪽60마일. 주매상: 6천+티켓. 2Bed Rm.아파트 3개. 가격: 19만불. 2)주매상: 5천5백. 짧은 영업시간. 가격: 19만불 ◉코리아타운 투자용건물: 40만불 다운페이. 가격: 89만9천.
(황용현부동산) Call 임윤식(Tony) 449-8644 (B), 636-7950(R)

◉몬트리얼 영어지역에 위치한 수퍼마켓 매매
좋은 리스 드림. 건물 매매도 가능함.
연매상: 80만불. 현주매상: $14,000
윗층에 아파트 4½ Room 있음.
◉가게를 맡아서 운영하실 메니저 구함.
전화 : 1-514-481-3291 Mrs. 김

아파트렌트

간이모텔 단기·장기 불문. 여행자에게도 크게 편리함. 693 Bloor St. W. Clinton House(Christie 지하철정거장옆 아리랑식당 앞) 전화 : 535-9541 Mr. 김

가게 렌트 (1700 Sq.feet)-런던지역(Dochester)
Walk-in 쿨러가 있으며 버라이어티나 take out food으로 적당.
전화 : 624-5817

가게 렌트.(약500sq. ft.) ◉렌트: 월650
꽃가게 그로서리 적합. 다운타운.신개발지역.
전화: 766-4504, 493-9599, 365-1489 다니엘

2 Bed Rm. 아파트 써브렛.
Queen & Lansdowne. 써브웨이 근처.
렌트: 월 $402. 전화 : 537-7624 Mr. 이(오후 7시이후)

아파트 렌트. ◉1Bed Rm. 독신. 월 $190
◉2Bed Rm. 부부. 월 $290
전화: 766-4504, 493-9599, 365-1489 다니엘

가 구 점

ecosys Ecosys Furniture
• 고급가구 전문 • 저렴한 가격 •신용보장
2300 Yonge (영 × 에그링톤)
전화 : 486-0397 (김 만구)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 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J Studio Signs (각종 간판, Silk Screen, Graphic)
127 Manville Rd. at Warden & Eglinton
전화 : (B)755-9087, (R)755-5304 이종소

꽃 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 각종 어렌지먼트 & 각종 플랜트 •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 751-5851(B) 757-6711(R) 이 동환

제인·팍 꽃집(Jane Park Plaza)
각종행사·생일·결혼·장례꽃 주문·배달함.
875 Jane St. Tor. 전화:B)769-0609 R)242-5194(여정웅)

한인경영 최대꽃집 Yonge Flower Shop
◉각종 플랜트, 어렌지멘트
◉화환 전문(일류 꽃전문가 고용)
◉토론토 전 지역 배달
589 Yonge St.(영×웰스리)
전화: 960-6265 Mr. 김

꽃집 욕-다운 (York Downs Florist)◉각종 어렌지와 Plant. 기타일체, 특히 분재(Bonsai)취급및 문의 환영. 배달함-이한균
◉3901 Bathurst St. Downsview 전화: (B)635-9794 (R)635-1288

Bloor & Kennedy 꽃집
결혼, 개업용 화환및 Plant
2194 Bloor St. W. 전화 : 766-0175

도 서 판 매

자녀교육을 위한 성공의 열쇠!!
ENCYCLOPAEDIA BRITANNICA (전30권) 부리테니카
연락처 (416) 469-1350 (H), 463-7423(B) 이송원

World Book (백과사전)
전화 : 533-2364. 767-1702(6시이후)(Mrs. 김)

메 리 야 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미술연구소

삼우스튜디오 ◉화/오후5시-6시30분 아동미술교실, 7시-9시 성인미술교실 ◉수/오후7시-9시 인체뎃상(성인)
58 Wade Ave. 전화 : 537-7630, 961-9780

미 용

킴스미용실(코리아하우스 뒤)
◉일·월요일 휴무.
전화: 532-7094(B) 138-0628(R) Mrs. Oh

스타미용실(Mrs.김) ◉남녀커트·파마전문. •2437 Finch Ave. W
화·토: 9am~8pm, (B)741-4410, 매주월요일만 동부영업: 10am~7pm
일요일 휴업. 전화: 267-0333(동부한국식품 플라자 내)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Islington 과 Kip ling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마야미용실 632 Bloor St. W.
한국관앞 서울여행사 2층
전화 : 588-1480(B), 924-0221(R)

Annie's 미용실. ◉여드름, 주름살 치료 전문
• 남녀 파마, 커트 전문. 812 Queen St. E.
전화 : 463-9071 Mrs. 리 (퀸×브로드·뷰)

레이몬드미용실(수잔:한국인)-◉남·녀 컷, 파마전문
월-금: 오전9시-오후8시, 토: 오전9시-오후5시
2491 Lakeshore Blvd.(레이크셔×로얄욕) 전화: 255-4745

빵 집

Honey Home Bake Shop - 결혼·회갑·생일등 각종 케익과 샌드위치 Tray·샐라드 주문배달.
전화 : 961-9780 Mrs. 장 276 Dundas St. E.

광고문의 533-2361

번역및통역

번역통역(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유좌석) 10 SUNRISE AVE UNIT 203.
전화 : 759-9505(5시 이후) M4A 2R1

변 호 사

RALPH M. LEVINE B.A., LL.B.,(Barrister & Solicitor)
627 Bloor St. W. #302(외환은행 블루어지점 3층)
전화 : 533-8539 ★통역 항상 가능함.

보 석

Young Sook's 보석상
★각종 보석 취급, 최저가격, 중고교환가능
215 Yonge St. (B)368-7961 (R)690-5217 민영숙

보 험

CANADA LIFE (강 학 수)
전화 : 868-0922

김 종 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얼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SUN LIFE (김신명)
전화 : 922-3111(B) 791-8196(R)

SOVEREIGN LIFE (강경범)
전화 : 233-6236(B) 279-7774(R)

부 동 산

복덕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석용 전화 : (B) 752-3111, (R) 298-2546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성
투자전문(IC & I)
전화: (B)497-0600

이훈모부동산
전화 : 225-1204

황용현부동산(주택매매. 사업체 일체.)
(B)449-8644~6 (R)286-1548 ★이헌영 (R)686-0207
★임윤식 (R)638-6919 ★강정숙 (R)244-8918 ★임분옥 533-9061

CANADA PERMANENT TRUST CO.
황 순일 전화: 481-3443(B) 745-5485(R)

SINCERE REALTY INC. (채준성 :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A.E. LEPAGE (우 덕 이)
전화 : 741-9170

이대환부동산
전화 : 535-1251

CENTURY 21 복덕방
조준상(John Cho)
전화: 743-7722(B), 742-0260(R)

사무용구및 계산기

S B S 캐쉬 레지스터 퀸스웨이×이슬링톤
각종 전자계산기 취급 (2년간 보증)
전화 : 252-7377(B) 762-4536(R) Mr. 안수일

사 진

새 한 칼 라 현 상 소(R)654-5691 전화 : 535-7772
결혼·돌사진·각종 증명사진·회갑·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지개칼라-촬영전문
COMMERCIAL·ART PHOTOS·WEDDINGS·VIDEO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9시30분까지

상 담

김보경 박사 (심리상담, 성인및 아동)
연락처: 1-(705)-549-3454(Penetang, Ont)
" (토요일): (416)-923-3336(토론토)

생 선

K & R Sea Food "일·월요일 휴업"
▲얼리지 않은 각종생선. ▲싱싱한 횟감 주문받음
765 The Queensway & Royal York. 전화 : 259-1585

Forest Glen Sea Food.
3413 Fieldgate Dr. Missi.
(Bloor & Two Block East of Dixie) 624-3092 임호빈

선 물 센 타

거북이 선물쎈타 617 Bloor St. W.
전화 : 535-2143(B)

빅·세븐 선물쎈타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T. V.

◉ 각종 비데오 테이프 대여전문
◉ 품질보장, 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 T.V.판매
전화 : 532-0210 손 병 헌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NIPPON VIDEO센타 ◉각종 일본테잎전문(4,000개이상)
◉비데오머신 판매. 1993 Danforth Ave.(댄훠스×우드바인)
Tel: 698-0633 Mr. 하마구찌 "일요일 Open"

T.V 수리는 431-0102
전화 : 431-0102 Mr. 박

크린톤에서 만납시다 CLINTON HOUSE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밀실 있음.
○아늑하고 조용 ---- 파이프시설 있음.
693 BLOOR ST. W.
535·9541 Mr. 김

〈식품 제조업체 탄생〉

ONTARIAN FERMENTATION

CO.TORONTO ONT.

교민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십니까? 작년 가을 일차 광고로써 제 종합식품에 대해 인사말씀을 드렸으나 몇가지 기계결함이 생겨 제품생산을 해드리지 못함에 심심한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제 온타리안 발효공업에서는 정상 가동을 하게되여 다시 인사드립니다.

저희 종합식품은 미생물에서부터 콩나물까지 대략 30여종을 생산할 예정이며, 또한 대기업체에서도 갖추기 어려운 약 10만달라에 해당하는 완벽한 연구시설 장비를 8년간 같이 일하며 13년 밀접한우대를 갖고있는 토론토대학 Buchnea박사로부터 이미 은퇴하면서 기증받아, 더욱 자랑스런 마음으로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읍니다.

또한 저희들은 평생을 연구에만 종사했고 그동안 연구실에서 일하시는 많은 분들이 그렇듯이 저희들도 연구실에서 수많은 세월 헤일수 없는 시행착오와 좌절을 밑바탕으로 만족한 성공을 체험했던 것을 바탕으로 교민여러분께 최선을 다해 우수하고 부담없는 제품생산을 하려고 합니다.

시행착오로써 이른바 풀어진다는 떡과 곰보진 두부를 사용하셨던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말씀 드리오며 이제는 우수한 제품이 여러 한국식품점에서 판매중이오니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라며, 교민여러분께 직접 저의제품이 어떻게 다른가를 단한번 사용하셔서 확인하실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본 발효공업에서는 특출한 진짜 육수제조기술에 대하여 특허수속을 밟고 있사오며, 일차적으로 아래와 같은 제품을 생산함을 교민께 알려 드리오니 많은 애용및 지도편달 있으시기 바랍니다.

온타리안 발효공업회사 대표 **최 재 경** 올림

※지방주문 환영합니다. (B)416-762~6153 (R)593~9458

1. 떡국용 흰떡 : (A) 특징-쫄깃 쫄깃한 것.
(B) 노인과 위장이 편치 않으신 분을 위한 쉽게 무르고 부드러운 것. 똑같이 육수가 첨부되어 있읍니다.

2. 가래떡과 떡볶기 : 아무리 얼리거나 굳어 있을지라도 얼음이 녹은 후 따끈한 물에 30분만 포장을 뜯지 말고 담가 두시면 즉시 말랑말랑한 뜨거운 떡으로 변합니다.
※ 매주 토요일 뜨거운 떡을 식품점에 배달합니다.

3. 두 부 : (간수없는 두부) 인류사상 최초의 걸작품!!
A. 한국을 포함하여 미국및 캐나다에서는 본사만이 순수한 간수를 사용하는 독특한 향취 또는 풍미와 맛이 특이하며 두부자체가 여러분께 답변해 드리고 있으며, 본 두부는 제조과정 자체가 이른바 회가루두부와는 전연 다르며 이미 교민들께 우수한 평을 받고 있으며 캐나다 사람들께 폭발적인 평을 받고 있읍니다. 본 두부는 다목적용입니다.
B. 흔히 말하는 회가루 두부도 일부 원하시는 교민을 위해 생산합니다. 본 두부는 매끄럽고 매우 부드럽지만 두부 (A)와는 비교할 수가 없고 향취와 맛이 없읍니다.
C. 간수 없고 어떠한 약품도 쓰지 않은 두부 역시 캐나다 사람들께 폭발적인 인기입니다.
*특수살균·비닐포장된 두부로써 실내에서도 보관 가능합니다.

4. 순 대 : (A) 피를 약간 사용한 한국토종순대로서 차게 식은 후라도 색깔이 곱고 자연스러운 맛과 구수한 향취가 특출하고,
(B) 피를 싫어하는 분을 위해 순 고기만을 사용했으며, 맛과 구수한 것은 같으며 색깔이 더 곱습니다.
(C) 채식가를 위한 순수한 식물성 순대, 역시 우수한 맛과 풍미가 있읍니다.
※ 순대는 매주 토요일 뜨거운 것을 배달하오니 식품점에서 구하실 수 있읍니다.

5. 식물성 쏘세지 : 역시 캐나다 사람들께 폭발적인 인기입니다.

6. 콩 나 물 : 순수한 자연식으로 색갈과 맛이 전연 틀립니다. 색은 아주 엷은 우유색이고 맛이 특이하게 구수할뿐더러 저장기간이 더 깁니다.

7. 떡 쌀 가 루 : 가장 곱다는 정평을 받고 있읍니다.

8. 찹쌀인절미 : 매주 토요일 뜨거운 떡을 식품점에 배달하며, 본 떡의 특징은 얼거나 굳을 경우 포장을 뜯지 마시고 뜨거운 물에 담가 두시면 말랑말랑한 뜨거운 떡으로 변합니다.

9. 우 동 : 원형과 타원형 두가지가 있으며 가마보꾸와 아부라기가 첨부되어 있읍니다.(근일 출하예정)

10. 짜 장 면 : 역시 원형과 타원형이 있으며 푸짐한 짜장습이 첨부되어 있고 맛과 향취가 뛰어납니다.

11. 옥 수 수 차 : 엽차식으로 포장되어 있고 단 한봉지에 4 liter 이상을 축출해 낼수 있고 찌꺼기는 엽차 봉지채 건져내면 됩니다.

12. Meat Activator : 불고기 부드러워지는 것으로 아무리 쇠심줄도 30분만에 부드러워지며 말린 간장을 비롯하여 양념이 포함되어 있고, 주성분은 살아있는 싱싱한 효소입니다.

13. 장 류 : ◆재래식 된장: 너무 맛이 좋아서 주부께서 화학조미료가 필요없다는 평을 받고 있으며 금년 늦여름 출하예정.
◆왜된장: 금년 말경 출하예정.
◆생짜장: 금년 늦여름 출하예정으로 맛이 대단히 특출합니다.
◆한국식 왜간장: 금년 봄 출하예정.
◆일본식(기고망) 간장: 명년봄 출하예정.

14. 중국식 찐만두 : 너무 맛이 특이하여 중국인도 따를수 없다는 평이며 돼지냄새가 안나고 고기가 부드러운게 특징입니다.

15. 떡국용 또는 군만두용 : 언채로 삶아도 터지지 않으며 돼지고기 냄새가 안나고 고기가 부드럽습니다.

16. 가마보꾸(생선묵) : A) 오색찬란한 여러가지 색이고 재래식이 아닌 순대나 쏘세지 형태로 설탕을 약간 줄였고 맛은 희한합니다.
B) 얄팍한 튀김 생선묵

17. 엿기름가루및 고추장용 메주가루 (금년 늦봄 출하예정)및 미생물 효소를 비롯하여 30여종.

18. 순 모밀냉면 : 쫄깃쫄깃하고 순 육수가 첨가되어 있음.

19. 아 부 라 게 : 당분간 본사제품인 우동용만 생산하고 시판용은 고려중에 있읍니다.

온타리안 발효공업 주식회사